



영예스러운 제12회 관악대상 시상

3월 19일 정기총회에 1천여 동문 참석



좌로부터 金孝姬여사(金鎮義동문 부인), 李長茂총장, 金鎮義동문, 林光洙회장, 金相廈동문, 金鍾燮동문, 孫一根상임부회장

관악대상 수상자

참여부문 **金相廈** 삼양사 회장
협력부문 **金鍾燮** 삼익악기 회장
영광부문 **金鎮義** 모교 교수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각계 동문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정기총회 겸 제12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冠岳大賞 수상자로 참여 부문에 삼양사 金相廈(정지45-49)회장, 협력 부문에 삼익악기 金鍾燮(사회사업66-70)회장, 영광 부문에 모교 물

리전문학부 金鎮義(화학공학64-71)교수를 선정, 시상했다.

이날 관악대상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모교 성악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중창단이 채지 있는 입담과 함께 '오 기쁜 날', '향수', 'Nessun Dorma', 'Funiculi Funicula'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열창했다. <관련기사 3~4면>

관악추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사거리에서 막 완공돼가는 19층의 장학빌딩을 올려다보는 서울대인들은 벅찬 감회를 갖게 된다. 2010년은 동문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사랑으로 장학빌딩을 완공하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3월 동창회 정기총회는 시종일관 열기 넘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물론 이날 주인공은 명예의 관악대상을 수상한 세 분의 동문이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을 이끌며 경제계에 헌신해온 삼양사 金相廈회장, 삼익악기로 우리나라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시킨 金鍾燮회장, 이분들은 이미 모교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온 분들이다. 또 '엑시온'이라는 입자를 창안한 金鎮義교수는 노벨상에 근접한 세계적 물리학자로 동문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총회에서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분은 다섯 번째 총동창회장에 선임된 林光洙회장이다.

林光洙회장의 상징은 장학빌딩이다. 동창회의 오랜 꿈이었던 건물 착공식을 2007년에 단행했고, 많은 난관을 헤쳐온 끝에 위대한 준공을 이제 눈앞에 둔 것이다.

열기 넘쳤던 정기총회

건물이 완공되면 수익금으로 재학생 장학금과 교수연구비로 연간 각 20억원 이상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한다. 이런 실익도 중요하지만 동문이나 가족들이 서울의 명소로 거듭날 장학빌딩 내외의 문화공간을 즐기며 마음의 안식처로 꼽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동문들에게

커다란 금지와 보람이 아닐 수 없다. 더 뜻깊은 일은 5천 8백여 동문들이 3백억원이 넘는 기금조성에 참여했고, 명예의 전당 벽면 동판에 그분들의 이름이 채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이다.

林光洙회장은 재임 중 역사적인 모교 원년 찾기를 착안해 실행에 옮겼고 특히 해외동창회의 활성화와 교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목할 일은 동문들의 참여의식을 높여주는 분위기 조성에 성공한 것이다. 예컨대 근래 정기총회나 신년 교례회에 사전 예약이 되지 않으면 입장이 안될 만큼 동창회에 대한 참여열기가 높아진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새로 회장을 맡은 林光洙회장의 왕성한 활동과 열의가 모교 발전은 물론 33만 동문들의 지주인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는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林炯斗논설위원)

느리나무광장

지난 3월 26일은 安重根의사가 32살의 젊은 나이로 순국한 지 꼭 1백년이 되는 날이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 역에서 한반도 침략의 수장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이듬해 여순 감옥에서 순국한 지 1세기가 지나 安重根은 조국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몸을 바친 위대한 사상가로서 되살아나고 있다. 그의 숭고한 희생 정신은 남북한은 물론 중국인들 가슴 속에 깊은 교훈으로 새겨져 있으며 그의 애국혼을 기리는 1백주년 추모 열기는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특히 安重根의사의 고향인 북녘 땅, 1백여 년이 지난 오늘날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또 安重根의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安重根의사 순국 1백주년을 기념해 춘천MBC는 방송 사상 처음으로 북한에 있는 安重根의 발자취를 HD(고화질) 영상에 담은 특집다큐멘터리 ‘安重根, 분단을 넘다’를 지난 3월 26일 전국에 방송했다. (2009년 10~11월

북한 취재)

그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 청년시절을 보낸 황해도의 해주와 신천 그리고 남포, 평양 등지에는 安重根 관련 사적지가 상당수 잘 보존돼 있음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安의사가 28살 때 독립계몽운동을 펼친 평안남도 남포에는 安重根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그가 1906년 남포에 세운 삼흥학교 자리에는 아직도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安重根, 분단을 넘다

鄭興寶

춘천MBC 사장

본보 논설위원



또 安의사의 후손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安重根의 조카인 독립운동가 安偶生의 묘를 찾아 헌화하는 모습이 최초로 공개됐다. 후손들은 독립유공자 가족으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고 있고, 교과서는 그를 독립운동가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편 安重根 의거 및 순국 1백주년을 맞아 安의사에 대해 남과 북은 하나된 모습이다.

2009년 11월 개성에서 남북은 安重根 의거 1백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공동모임을 가진데 이어 安重根 순국 1백년이 된 지난 3월 26일엔 安의사가 순국한 중국 뤼순감옥에서 남북한이 처음으로 공동추모식을 개최했다. 남북은 앞으로 황해도 신천에 있는 安의사 생가를 복원하고 오는 10월 26일 安의사 의거 1백1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남북 공동학술대회도 개최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 분단을 넘어 ‘민족영웅’으로 존경받는 安重根의사! 安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咸世雄신부의 말처럼 安의사는 ‘남북한을 연결하는 중요한 정신적 고리’이다. 安의사 순국 1백주년을 맞아 ‘분단된 조국이 아닌 하나된 조국의 독립을 꿈꿨던’ 安의사의 고귀한 순국정신을 이어받아 분단된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관악시단

오늘이

金思寅(국문74-80)
동덕여대 문예창작전공 교수·시인

57번 버스 타고 집에 오는 길
여섯살쯤 됐을까 계집아이 앞세우고
두어살 더 먹었을 머스마 하나이 차에 타는데
고무라코고무라 주머니 뒤편 버스표 두 장 내고
동생 손 끌어다 의자 등을 쥐어주고
저는 건드림 손잡이에 겨우겨우 매달린다
빈자리 하나 나니 동생 때려다 앉히고
작은 것은 안으로 바짝 당겨앉으며
‘오빠 여기 앉아’ 비운 자리 주먹으로 탕탕 때린다
‘됐어’ 오래비자리는 짐짓 통생이를 놓고
차가 급히 설 때마다 걱정스레 동생을 바라보는데
계집애는 앞 등받이 두 손으로 꼭 잡고
‘나 잘하지’ 하는 얼굴로 오래비 올려다본다

안 보는 척 보고 있자니
하, 그 모양 이뻐
어린 자식 버리고 간 채아무개 추도식에 가
술한데만 화풀이하고 돌아오는 길
내내 멀쩡하던 눈에
그것들 보니
눈물 핑 돈다

동문칼럼

문학이 찬밥 신세가 된 지는 이미 오래다. 취향이 문학작품 읽기였던 사람들 중 상당 부분이 상업영화 쪽으로 넘어갔다. 문학에서 소재와 영감을 구하던 영화가 도리어 문학을 내려다보는 역전 현상이 벌어져 있다. 거시서사가 사라진 문학은 모기 다리에 털이 몇 개인가를 따지는 미시서사로 한없이 줄어들어 독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읽히는 것이라곤 본격문학을 가장한,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상업주의 문건들이다.

소비향락적인 대중문화와 몸을 섞은 문학, 예컨대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학이 그러한데, 그것의 한국판 아류들이 지금 문학의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문학계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를 비평하기를, 그의 소설에는 일본 대신 ‘미국’이 들어와 있다고, 따라서 그의 소설은 일본어 문학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일

는 일은 오직 문학만이 할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와 쾌속 질주의 배후로 과거의 것들이 급속도로 미끄러지면서 잊혀지고 있다. 시시각각 우리 뒤로 버려지는 수많은 아름다움과 의미들을 생각해보자. 슬픔도 이제는 과거의 정서가 돼버린 것 같다. 슬픔이 낮설어졌다. 정제식장에도 슬픔은 없다. 슬픔을 아는 자가 진짜 인간일 텐데, 우리는 더 이상 슬픔을 모른다.

가족과 함께 산골의 한 민박집으로 피서를 갔던 한 도시 소녀가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보고 울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별들을 보고 웬지 눈물이 났어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냥 찼했어요.” 가슴 뭉클한 그 감정이 낯설고 무섭기도 해서, 얼른 집안으로 도망쳤노라고 했다. 그녀는 자기가 왜 울었는지 까닭을 모른다. 그 슬픔의 정체를 문학이 해명해줘야 한다. 아마도 밤하늘의 무수한 별빛들이 그 소녀의 존재의 근원에 깊숙이 닿았던 모양이다. 그것은 존재의 슬픔이라고, 대자연 속의 극히 작은 한 분자로서의 자신을 깨닫는 순간이라고, 자신의 순수한 영혼이 드러나는 순간



玄基榮

(영어교육63-67)

前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큰 이야기, 강한 이야기

본문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여기서 ‘미국’이란 물론 할리우드식의 사고방식, 소비향락문화를 의미한다.

이제는 우리 문학이 달라져야겠다. 일상을 절대시하는 편견을 버리자. 일상의 작은 이야기와 함께 진짜 이야기, 큰 이야기, 강한 이야기도 이제는 복권돼야 하겠다. 거시서사는 이미 영화 쪽으로 가버렸다고 탄식하지 말자. 영화의 서사는 대체로 단순해 진실을 제대로 품기 어렵다. 인생사는 영화가 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오직 문학만이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문학만이 진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물질적 가치 대신에 정신적 가치를 옹호하

이라고, 문학은 그 소녀를 다독거려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 순수한 슬픔을 인간은 잊은 지 오래다. 슬픔을 아는 인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인간이 참된 인간이다. 문학은 그 순수한 슬픔을 일깨워줌으로써 인간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줘야 한다.

아름다운 것들은 부서지기 쉽다. 맹목의 질주 뒤로 아름다운 것들이 수없이 부서져 버려지고 있다. 과거 속에 버려진 아름다운 것들을 복원해 내야 한다. 부당하게 폐기된 아름다움과 의미들을 해명해내는 일을 문학이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살려 천박한 현재를 순화시키는 길일 것이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光洙
편집인 孫一根
인쇄인 朴薦壽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洛,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趙在鏞, 金鎮國, 崔英勳, 李容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본회 林光洙회장은 정기총회 개회사에서 “올해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일들이 결실을 맺는 동창회 재산 1천억원 시대가 열리는 해”라고 말했다.

“열정 다해 장학빌딩 완공·모교 지원에 앞장”

정기총회서 제23대 회장에 林光洙회장 재선출

지난 3월 19일 본보 金亨珉(외교76-80)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林光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일들이 결실을 맺는 동창회 재산 1천억원 시대가 열리는 해”라면서 “장학빌딩이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이며, 모교에 제출한 개교 원년 찾기 건의안이 채택되면 모교는 올해부터 115년의 역사를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창회가 개최하는 신년교례회와 정기총회에는 수년 전부터 1천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하고, 서울대 가족 친목대회에는 6천여 동문 가족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우리 서울대인의 단합된 모습을 과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가장 보람있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서울대인이 모래알이 아니라 모교 사랑의 열정으로 똘똘 뭉쳐 모교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개회사 요지 참조>

모교 李長茂총장은 축사에서 “모교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인화는 학문적 자유와 도전, 지성인에게 필요한 긴 호흡과 여유를 제도적, 재정적으로 건실히 뒷받침할 글로벌 대학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법인화를 민영화로 혼돈하고 있는데, 이 법인화를 통해서 모교는 진정한 국립대로서의 자율성과 재정확충을 보장받고, 대학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국가와 사회에 등불이 되는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孫一根상임부회장은 관악대상 수상자 선정 경과보고에서 “지난해 노벨상 만찬연회에서 피에테 놀만 스웨덴 국가연금재단의 장이 ‘노벨상보다 상금을 더 많이 주는 곳도 많지만, 노벨상이 1백년 넘게 변함없이 최고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은 어떤 로비도 통하지 않는 엄격함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관악대상이 지금은 그 규모나 전통에 있어서 노벨상과 비견할 수 없지만, 이상의 위상과 품격을 지켜나가기 위해 운영위원들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공적 및 수상소감 4면 참조>

金在淳명예회장의 건배사에 이어 이날



연임 축하 꽃다발을 받은 林光洙회장

안건 심의에서 동창회 회칙 제8조(임원의 선임)와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에 따라 제23대 회장에 林光洙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으며 朴英俊·朱成民감사를 재선임했다. 또 부회장단 구성은 林光洙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지난 2002년 제19대 회장에 취임해 5선을 기록한 林光洙회장은 그동안 지상 19층,

지하 6층 규모의 장학빌딩 건립, 서울대 출신 언론인들의 모임인 冠岳언론인회의 창설, 서울대 폐교론에 대한 대응논리를 정리한 ‘國家競爭力과 教育的 秀越性’이라는 단행본과 개교 원년 찾기의 정당성을 수록한 ‘正統과 正體性’이란 단행본을 발간하고 각종 행사에 유례없는 동문 참여를 이끄는 등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林光洙회장은 수락인사에서 “당면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라는 동문들의 엄중한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모교 사랑의 열정을 다해 봉사하겠다”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소망이 모아진다면 작은 시작도 위대한 일로 남을 것이라고 믿고, 모교와 조국의 발전에 동참해 무한책임을 실천하는 서울대인이 되자”고 다짐했다.

이어 본회 사무총장이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본회와 재단법인 관악회의 2009년도 결산과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업무를 요약·보고했다. 이어 朴英俊감사가 2009년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했으며, 만장일치로 동창회 2009년도 결산을 의결했다.

또 2007년 6월 25일 기공식부터 2010년 3월까지 장학빌딩의 건립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선보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수건 세트와 모교의 뿌리를 찾아 그 자료를 수집 정리한 단행본 ‘正統과 正體性’, 모교 발전기금에서 준비한 홍보자료와 핸드폰 액정 클리너를 받았다. 또 동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는 서울대동창회 KB 패스카드 홍보부스가 마련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表>



모교 성악과 중창단의 축하 공연

林光洙회장 개회사 <요지>

올해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일들이 결실을 맺는 동창회 재산 1천억원 시대가 열리는 해입니다.

장학빌딩이 당초 계획대로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이며 개교 원년 찾기의 일환으로 발간한 ‘正統과 正體性’ 단행본이 대내외적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작년 정기총회에서 의결해 모교에 제출한 건의안이 채택되면 서울대학교는 올해부터는 115년의 역사를 자랑하게 될 것이며 세계 명문대에 손색이 없는 역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금년 7월에 임기로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신 李長茂총장님께서서는 모교를 2025년에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는 Vision을 선포하고 지난 4년 동안 그 기반을 다졌으며,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여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받는 명문대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대학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면서, 안정적인 재정 확충이 가능한 국립서울대학교의 법인화 추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이제 국회 심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창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천명한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총동창회가 국내 동문뿐만 아니라 미주, 아시아, 유럽 등 세계에서 활약 중인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그 어느 때보다 모교 지원에 큰 역할을 한 보람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부터 배포해드린 ‘正統과 正體性’ 단행본은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을 펼쳐 모교의 뿌리를 찾아 그 자료를 수집,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100년, 200년이 가도 건재할 자랑스러운 모교 지원센터 역할을 하게 될 장학빌딩 건립은 그동안 인근 불법건물의 철거가 1년 가까이 지연됐으나 당초 예정대로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동문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울대 가족들의 친목과 서울대인으로서의 품격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冠岳大賞 수상자 공적 및 수상소감

참여부문 삼양사 金相廈회장

▲1945년 문리과대학 정치학과에 입학해 1949년 졸업했다. 1949년 삼양사에 입사해 1988년부터 회장으로 활동하며 60년간 국내 굴지의 기업을 이끌어왔다.

三養訓과 中庸을 통한 정도 경영으로 삼양사를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시킨 金회장은 한국 최초의 장학재단인 양영재단과 1968년에 설립한 수당재단을 통해 인재 양성에 헌신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유수의 경제단체·기관의 장, 대한농구협회장, 한국장묘문화개척국민협의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 각 분야에 크게 공헌했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본회

부회장, 이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金회장은 장학발딩 건립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했으며, 모교 병원과 발전기금에 기금을 쾌척하는 등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기여했다.

▲金相廈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난 80여 년을 한 번 되돌아보게 됐다”며 “큰 실수 없이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선친이신 秀堂 金季洙선생과 백부이신 仁村 金性洙선생, 두 분의 훌륭한 스승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선친계신 우리나라 농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킨 선각적 기업가로서 정도를 지키는 중용의 자세를 견지하셨는



데, 그 뜻을 받들어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구분하며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상도와의 내실을 증시하는 경영으로 일관해왔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오늘 주시는 관악대상은 서울대 동문으로서 더욱 모범을 보이며 남은 여생을 잘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받들겠다”고 말했다.

협력부문 삼익악기 金鍾燮회장

▲1966년 문리과대학 사회사업학과에 입학해 1970년 졸업했다. 1979년부터 건설장비 플랜트와 환경설비 전문업체인 (주)스페코를 운영하며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국가 기간산업에 기여해왔다.

아울러 2002년 독일의 세계적 피아노업체인 벡스타인과 당시 적자기업이었던 삼익악기를 인수해 M&A에 대한 뛰어난 안목으로 이 분야에서 세계 3위 악기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국내외 각종 음악교육과 문화예술 분야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온 金회장은 본회 부회장과 ROTC동창회장으로 활동하며 본회 장학발딩 건립기금과 모교 발전기금에

각각 20억원을 기부함으로써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또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기금 출연을 적극 홍보·권고해 동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공헌했다.

▲金鍾燮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동창회의 더 큰 일꾼이 되라는 뜻으로 가슴에 새기겠다”며 “사회 사업학과 졸업 후 작은 기업을 일궈오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교의 여러 특별과정을 들으며 만난 좋은 교수님과 선배 동문들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교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아



닌가’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그러는 동안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더 빛을 발한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제 길을 찾아 더 열심히 일해서 모교와 동창회가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조그마한 기여를 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영광부문 물리천문학부 金鎮義교수

▲1964년 공과대학 화학공학과에 입학해 1971년 졸업했으며, 1975년 미국 로체스터대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 모교 물리학과 조교수로 부임해 1990년부터 물리천문학부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金교수는 ‘엑시온’이라는 입자를 창안, 우주의 진화와 관련된 핵심 이론을 독자적으로 개척해 자연에 존재하는 네 가지 기본 힘 중 하나인 핵력을 설명하는 데 성공한 세계적인 물리학자이다. 유명 개괄 논문인 ‘Physics Report’와 ‘Review of Modern Physics’로부터 두 번이나 초청되는 등 우주 진화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87년 한국과학대상, 1992년 호암상을 비롯해 2005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으며, 2005년 국가석학에 선정되는 등 노벨상에 근접한 과학자로 손꼽힌다.

▲金鎮義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으며 대학시절을 보냈고, 졸업 후 선배 동료들의 업적에 힘입어 서울대인이라는 것만으로 외국에서도 인정 받았고, 더 나아가 서울대 교수로서 연구할 수 있게 해준 것 또한 모교와 물리학과 선배 교수님들 덕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연과학에서의 학문은 우리의 존재와 관련이 있는데, 우주의 암흑물질은 은하계를 만드는



씨앗, 즉 모든 별들을 있게 하는 은하들을 만드는 기초로서 저는 이 점을 인정받아 엑시온에 대해 두 편의 개괄 논문을 쓸 수 있었다”며 “자연과학은 우주의 진리를 캐나가는 학문이고, 자연과학자는 논문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진리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자신의 철학”이라고 피력했다.

張炳德동문 장학기금 1억3천5백만원 쾌척

지난 3월 30일 단일시스켄 張炳德(화학 교육 53-57) 회장이 본회 장학발딩 건립기금으로 1억3천5백만원을 쾌척했다.

올해 喜壽(77세)를 맞이한 張동문은 “서울대를 졸업한 동문으로서 당연히 모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일조해야겠다고 생각해 희수를 기념해 그동안 모아놓은 것을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張동문은 사범대



학동창회에도 1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지난 1983년부터 의료용 가스전문회사를 운영해온 張동문은 대형병원, 대학부속 병원 등에 마취·혈액 분석·MRI용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반도체용 가스도 생산하고 있다.

가족 중에 장남 張世珍(경제80-84)·국립싱가포르대 석좌교수와 며느리 李京美(작곡81-85)한양대 교수가 동문이다.

장학발딩 건립기금 출연 줄이어…

李世中·金賢山동문 등 1천여만원씩 尹洪重동문 부인상 조의금 값진 출연

지난 3월 24일 본회 부회장인 현대합동법률사무소 李世中(행정 53-57)변호사가 장학발딩 건립기금으로 1천만원을 쾌척했다. 또 金賢山(법학54-58)前명지대 교수가 세 차례에 걸쳐 총 1천2백만원을 출연했다.

한편 지난 3월 16일 尹洪重(약학55-59)前금강약국 대표가 특별한 사연으로 본회 사무처를 방문해 장학발딩 건립기금으로 써달라며 1천1백20만원을 쾌척했다.

최근 尹동문은 복막암이라는 희귀암에 걸린 부인 李相妊씨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다. 尹동문은 ‘남을 위해 좋은 일 한번 하고 죽고 싶다’는 부인의 유지를 받들어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 1천1백20만원을 고스란히 장학기금으로 출연해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1970년부터 35년간 약국을 운영해오다 5년 전 부인의 요양을 위해 약사인 며느리에게 약국을 인계한 尹동문은 “아내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며 “평소 동창회에 관심이 많고 동창회보 애독자였던 아내는 동문소식을 보면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내의 뜻에 따라 이렇게 좋은 일에 기부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 기금은 ‘금강기금장학회’ 명의로 약대 재학생들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본회·관악회 이사회서 23대 이사 선임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본회 회장단, 재단법인 관악회 임원, 각 단과대학(원)·특별과정 및 지방지부 동창회장, 본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 제154차 상임이사회·관악회 제109차 이사회를 열고 동창회 예산과 관악회 결산을

심의 의결했다. 〈동창회·관악회 결산 6~7면 하단 참조〉

이날 회의에서 2010년 총동창회 예산과 2009년 관악회 결산을 승인했으며, 회칙 제8조 제2항(당연직이 아닌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에 따라 추천된 8천5백명을 제23대 이사로 선임했다.

관악대상 운영위원회서 수상자 선정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8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19층 목련실에서 관악대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孫一根운영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제12회 관악대상 수상자로 참여부문에 삼양사 金相廈(정치45-49)회장, 협력부문에 삼익악기 金鍾燮(사회사업66-70)회장, 영광

부문에 모교 물리천문학부 金鎮義(화학공학64-71)교수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林光洙회장, 孫一根운영위원장, 白文基·尹勤煥·朴熙伯·金哲洙·金讚淑·李相周·郭永駟·孔大植·洪性大·孫京植·南正鉉·金鳳九·朴英俊·辛鉉雄·胡文赫·成樂寅·尹順寧·吳世正·朱鍾南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表〉



앞줄 張友鉉부부·池堤根부부·朴聖泰동문, 뒷줄 任廷基학장, 朴容晔회장

의과대학동창회

합춘대상·공로패·감사패 시상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晔)는 지난 3월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정기총회 및 제11회 합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미국에서 방문한 金利鎭·文大鉦동문을 비롯해 모교 朱槿源·權舜赫명예교수, 姜信浩·李吉女전임 회장, 모교 의과대학 任廷基학장 등 4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朴容晔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2억원의 동창회 기금을 모아 10년만에 회원명부를 발행하고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합춘대상 수상자로 학술연구부문에 모교 張友鉉(의학50-56)·池堤根(의학56-62) 명예교수, 사회공헌부문에 대한의사협회 朴聖泰(의학58-64)고문을 선정해 상패와 메달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지난해 6월 회장암

관정을 받고 투병 중인 河權益동문이 참석해 전임 회장에게 주는 공로패를 받았다. 河동문은 “끝까지 노력해서 삶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河동문은 회장 임기 동안 동창회 재산을 7억여 원으로 늘리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그밖에 지난해 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嚴翼富(의학58-64)·辛美子(의학59-65)·尹正哲(의학59-65)·李容國(의학59-65)동문 등 35~36대 상임 임원에게 공로패를, 咸泰英(의학44-50)·郭大熙(의학54-60)·鄭泰完(의학64-70)동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정기총회 자료에 따르면 동창회는 지난해 회비 명목으로 1억7천여 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올해 친목 및 장학사업에 3억3천6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회에 앞서 열린 학술심포지엄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白永勳(대학원57졸)원장이 초빙돼 ‘한국인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그들’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대전·충남지부동창회

신임 법조계 동문 환영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3월 9일 金鎭權(행정68-72)대전고등법원장, 金二洙(법학72-76)특허법원장, 金庸憲(법학74-79)대전지방법원장 등 새로 부임한 법원장 동문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다.

또 22일 蔡東旭(법학77-81)대전고등검찰청장, 韓明官(법학78-82)대전지방법검찰청장 등 10명의 검찰 동문 환영회를 개최했다.

한편 동창회는 최근 대전·충남 지역 6천여 동문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회원 명부를 새로 발간했다. 〈문의 : 042-255-8390〉

군포, 과천, 의왕에 거주하거나 이곳에서 활발히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지역에서도 동창회 결성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창립취지를 밝혔다.

이날 준비위는 회칙을 제정하고 임원진을 구성했다. 초대 회장으로 남서울대 辛丁哲(건축67-71)교수, 감사에 金壽燮(공법85-89)변호사를 선출했다. 金昌範위원장은 수석부회장에 선임됐으며 사무국장은 동단건설 金雲基(응용미술82졸)회장이 맡기로 했다. 李海政(약학46-49)·愼重大(행정65-72)동문은 고문으로 추대했다.

辛丁哲회장은 “우선 주소록을 완벽하게 정비하고 회원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후회장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장 등을 역임했다. 〈南

특별기고

본회 金在淳명예회장이 지난 3월 13일 일본 다쿠쇼쿠대(拓殖大) 주최 한일협력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다쿠쇼쿠대 와타나베 도시오(渡辺利夫)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에는 게이오대(慶應大)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교수, 릿쿄대(立教大) 李鍾元법학부장, 북동아시아경제포럼 趙利濟의장이 패널리스트로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요약해 소개한다.

朴正熙가 지도력을 발휘한 약 20여 년 동안, 한국의 1인당 GNP는 87달러에서 1천6백44달러까지 상승했고, 그 기세의 연장으로 지금은 2만달러대까지 올랐습니다. 그 때문에 朴正熙는 의심받을 것도 없이 ‘한국 경제발전의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인식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正熙의 경제개발 비전의 본질은 타국의 개발 경험의 연구에 근거한 귀납적인 방법론에 있었습니다. 朴正熙가 특별한 관심을 가진 근대화의 사례는 메이지시대의 일본, 孫文시대의 중국, 케말 파사시대의 청년 터키, 나세르시대의 이집트 등이 있습니다. 朴正熙는 “일본 메이지유신의 사례는 우리 혁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정권과 존슨 정권 시기에 미국 대통령의 안전보장 고문이며 저명한 경제학자인 월트 로스토 교수에 의하면, 많은 케네디 정권의 각료는 한국의 능력과 잠재적인 경제성장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스토 교수는 朴正熙와 협력하도록 케네디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스토 교수는 한국을 방문해 한국 경제성장의 ‘Take off(개발 도상국이 발전의 정체 상태로부터 자립 성장의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로 향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거의 채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朴正熙는 경제성장의 Take off를 감독하는 목표를 보기 좋게 달성하고, 한국을 근대적인 공업국가로 변혁시켰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민주화운동을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朴正熙는 한국 민주주의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朴正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제발전이 중산계급을 낳았고,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 다원주의의 중심이 됐기 때문입니다.

닉슨 독트린에 의해 한국에서 미군을 일부 철수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朴正熙정권은 경제성장과 장래에 의지하며 매우 외교를 잘 구사해 군사력을 증강시켜 나갔습니다.

朴正熙는 말버릇처럼 “내가 했던 것에 관계해서는 죽어서도 책

임을 진다. 반론이 있는 사람은 나의 무덤에 채찍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기분전환을 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朴正熙시대를 되돌아보면서 새삼 생각나는 것은 그 시대에는 어쩌면 민주주의보다 소수 엘리트의 선의의 독재체제가 보다 적합한 정치 양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듯 독재하에서도 국가의 운명은 융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한일관계의 전개와 朴正熙시대

라는 흥해도 국민 자신이 어른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지도자가 떠난 후 국민은 마치 방향을 잃은 양의 무리와 같습니다. 이것을 실감한 것이 朴正熙 다음의 한국 정치의 시행착오 20년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나라의 문제는 과잉 포퓰리즘에 좌우되기 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특히 글로벌리제이션시대에 맹목적인 내셔널리즘에 좌우되지 때로는 지정학적으로, 때로는 자유 민권의 절차를 일탈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타락한 민

주 정치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개개인이 노력해 확고부동한 자존심과 책임을 가지는 성인이 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 정치는 그 국민의 수준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은

지당한 말입니다.

끝으로 한 마디 말하겠습니다. 국제 정치의 움직임은 때로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흘러갑니다. 날마다 잠음이나 주변 분위기 등에 얽매어 깊이 흘러가는 목적지까지 마음 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최상의 버팀목은 아닐까요.

글로벌시대라고 부르는 지금, 국가마다 확고한 국가전략이 없으면 국제사회의 풍파 속에서 헤매며,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한국이 가야할 길, 한국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 그것은 글로벌 기구에 확실히 자리 잡으면서, 우호국과의 관계를 굳건하고 깊게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日文國譯〉

춘천지부동창회

신입생에 첫 장학금

춘천지부동창회(회장 林正根)는 지난 3월 9일 춘천시내 조선갈빗집에서 朴升漢(지리교육53-57)·洪仁基(생물교육54-58)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학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林正根회장은 경과보고에서 “지난 2008년 재결성한 동창회가 동문 선후배간 친목을 넘어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기로 함에 따라 작년부터 매월 정기모임에서 각출한 기금으로 장학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도교육청의 협조로



춘천지부 林회장(中)과 장학생

춘천지역에서 모교에 입학한 신입생 15명 중 2명의 재학생에게 동창회 명의로 첫 장학금을 수여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의학과 김재성 군과 사회교육계열 이다솔 양에게 각각 1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초대 辛丁哲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양지부동창회 창립 ... 회원 3백명

회장에 辛丁哲동문

안양지부동창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金昌範)는 지난 3월 17일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한성갈비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李海政원로 동

문, 愼重大 前안양시장, 沈在哲국회의원을 비롯해 4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金昌範(의학70-78 혜성내과의원 원장)위원장은 “전국 각 지역에 동창회가 결성돼 있는 가운데 3백여 명이 넘는 동문들이 안양,

사범대학동창회

재학생 15명에 장학금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卞柱仙)는 지난 3월 17일 모교 관악캠퍼스 사범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동창회는 범은장학생 10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재학생에게 3천4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범은장학금은 범은장학재단 張忠植(역사교육52입)이사장이 지원하고 있다.

SPARC동창회

金權震회장 선출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洪起南)는 지난 3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성신화학 金權震(12기)대표를 선출했다.

상임수석부회장에 파카텍스 한상철(15기)대표, 감사에 세코세이브 安相元(3기)대표와 금전세무서 柳賢善(8기)과장을 선임했다.

이날 모교 자연과학대학 李鍾燮학장이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전임 洪起南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신임 金權震회장이 그밖의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朴明潤·李幸子특지장학금

청소년보호위원회 朴明潤(보대원74-76 관악회 이사)위원장은 지난 4월 2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朴明潤·李幸子특지장학회’ 연구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朴明潤위원장은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지연(보건정책관리학)·이진영(환경보건학)동문에게 각각 50만원을 전달했다.

간호대학동창회

장학금 수여·신입회원 환영식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洪京子)는 지난 3월 17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신입회원 환영식·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洪京子회장은 신입회원 환영사를 통해 “전문직의 일원으로 활동하게될 여러분의 뒤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동창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자부심을 갖고 모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洪회장은 최우수 졸업생인 김하나 양에게 동창회장상과 행운의 열쇠를 전달했으며, 그밖에 신입 회원에게 여러 임원들이 장미꽃과 화장품품을 선물하며 동문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했다.

이날 동창회는 12명의 재학생에게 8백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宋美順학장은 “취임 후 바로 1

를 개최했다.

모교 의류학과 朴貞姬교수의 학장 이임식을 겸한 이날 행사에는 崔炳五회장을 비롯해 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이날 음악회에서 성남시립합창단이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했다.

AFB동창회

신춘음악회 열어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崔炳五)는 지난 3월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신춘음악회

를 개최했다.

모교 의류학과 朴貞姬교수의 학장 이임식을 겸한 이날 행사에는 崔炳五회장을 비롯해 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이날 음악회에서 성남시립합창단이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했다.

만 평

李元馥



동창회 임원들이 신입 회원들을 환영하고 있다.

억원의 장학금을 모교에 기부해 주신 洪회장님을 비롯해 늘 어려운 고비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

신 동문 여러분의 사랑으로 재학생의 60% 이상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GLP동창회

총회서 올해 사업 논의

글로벌리더십과정동창회(회장 李鍾大)는 지난 3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1백

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동창회는 올해 골프대회(5월), 등산대회(10월), 조찬세미나, 수첩제작, 장학금지원, 송년회 등의 사업에 8천5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ROTC 15기 동기회

창립 3주년 기념식

ROTC 15기 동기회(회장 金相洙)는 지난 3월 15일 서울 역삼동 메모리스에서 동기회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부산, 울산, 대구, 광주, 광주에서 올라온 동문들을 비롯해 60여 명의 동기생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金相洙(자원공학73-77)회장은 “직장에서 은퇴할 나이가 돼가는 우리 시기에는 친구가 더없이 소중한하다”며 “활발한 만남을 통해 학창시절과 장교시절 동고동락했던 끈끈한 동지의식을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지난 2007년 5월 창립된 동기회



는 총 회원 수가 3백30명이며 朴義承(전기공학73-77)명예회장, 朴庭模(수학교육73-77)·李承準(수의학73-77)·黃殷植(전기공학73-77)수석부회장, 羅燦熙(농학73-77)사무총장, 金元(동물학73-77)·申國泳(잠사73-77)·李大成(조경73-77)·崔聖植(체육교육73-77)운영위원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南)

2009년도

동 창 회 결 산 공 고

대 차 대 조 표

200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3,764,305,656	부 채	70,521,626
1. 유동자산	3,762,887,814	1. 유동부채	42,762,556
(1) 당좌자산	3,762,887,814	1) 미지급금	28,653,570
1) 현금	1,212,800	2) 예수금	14,108,986
2) 보통예금	3,667,670,071	2. 비유동부채	27,759,070
3) 미수수익	68,747,873	1) 퇴직급여충당금	27,759,070
4) 미수금			
5) 선납세금	25,257,070	자 본	3,693,784,030
(2) 재고자산		1. 자본금	4,161,271
2. 비유동자산	1,417,842	1) 기본금	4,161,271
(1) 투자자산	305,750	2. 자본잉여금	
1) 지급보증금	305,750	3. 자본조정	
(2) 유형자산	1,112,092	4. 이익잉여금	3,689,622,759
1) 비품	80,706,691	1) 미처분이익잉여금	3,689,622,759
감가상각누계액	(79,594,599)	※ 당기순이익	254,531,901
합 계	3,764,305,656	합 계	3,764,305,656

손 익 계 산 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1. 매출액	394,525,091	13) 전산화비용	17,706,680
1) 광고수입	394,525,091	14) 친목사업비	95,204,600
2. 매출원가	673,343,763	15) 지원사업비	72,196,000
1) 간행물비	673,343,763	16) 조직강화비	483,133,137
3. 매출충손실	278,818,672	17) 사무비	16,461,488
4. 판매관리비	1,016,798,908	18) 예치금기금전출	12,000,000
1) 직원급여	84,979,340	5. 영업손실	1,295,617,580
2) 상여금	20,660,250	6. 영업외수익	1,550,242,092
3) 제수당	15,165,520	1) 수입이자	169,465,035
4) 퇴직급여	3,351,403	2) 찬조금수입	65,932,000
5) 복리후생비	7,922,950	3) 회원회비	1,299,688,370
6) 여비교통비	9,015,456	4) 잡수입	15,156,687
7) 세금과공과금	10,971,080	7. 영업외비용	92,611
8) 감가상각비	2,070,319	1) 잡손실	92,611
9) 보험료	3,641,590	8. 법인세차감전이익	254,531,901
10) 회의비	150,113,140	9. 법인세비용	
11) 지급수수료	9,147,965	10. 당기순이익	254,531,901
12) 잡비	3,057,990		

위와 같이 공고함
2010. 3.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음악대학동창회

66학번 동기회서 기금 출연

음악대학동창회(회장 徐桂淑)는 지난 3월 8일 서울 중구 뉴서울호텔 ROOM201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미국 LA에서 온金玉子동문을 비롯해 모교 음대鄭台鳳학장, 李在淑·申秀貞 명예 교수 등 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우의를 다졌다. 徐桂淑회장의 환영 인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정기총회, 장학금 수여식, 신입회원 환영식 등의 1부와 공연, 만찬, 경품추첨 등의 2부 행사로 나눠 진행됐다.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성악, 기악 등 각 학과별 전공 학생 6명에



徐桂淑회장(右)이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게 각각 1백만원을 전달했다. 특별히 이날 졸업 40주년을 맞이한 66학번 동기회(대표 全瓊姝)가 1천1백여 만원을 모아 동창회 기금으로 전달해 큰 박수를 받았다.

모교 음대 남성중창단의 힘찬 노래로 문을 연 2부는 숙명여대 작곡과 崔承俊(작곡65-72)교수의 마술쇼와 만찬이 어우러져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徐桂淑회장, 宋元淑·金鎮喜부회장 등 여러 임원들이 푸짐한 경품을

협찬해 모든 동문이 골고루 선물을 받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행사를 마무리했다.

동창회는 올해 모교 음대 오케스트라와 함께 음악회를 개최하며 음대 역사자료관에 전시될 기록물을 수집할 계획이다. 또 운영자금 유치를 위해 공연기획사와 동문들이 ‘음대동창회 후원, 주최’ 등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영어영문학과동창회

총회서 ‘멘토·멘티’ 결연식 가져

영어영문학과동창회(회장 柳津)는 지난 2월 25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2층 국제회의장에서 1백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柳津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0년 동창회의 메인테마를 ‘모교사랑, 후배사랑’으로 정하고 “모교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뜻있는 동문들이 모교 발전기금에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영문학과 지정기탁의 기부금을 출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후배사랑을 실천에 옮긴다는 뜻에서 모교와 동창회가 긴밀하게 협의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친목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

해 매월 첫째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등산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5월 13일 미국 콜린과월 前극무장관을 초청해 조찬포럼을 열기로 했다. 총회 후 이어진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따라 11명의 졸업생 멘토와 15명의 재학생 멘티간에 결연식이 있었으며, 安秉華(영문50-58)포스코동우회장의 건배사에 이어 흥겨운 레크리에이션과 경품추첨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위해 柳津회장, 李鎮泳(영문77-81)부회장을 비롯해 金京源(영문78-84)·趙顯俊(영문81-85)·趙亨濟(영문83-87)·趙在範(영문84-88)동문 등이 경품을 협찬했다. (南)

동승클럽

李成珪교수 강연

문리대 65학번 모임인 동승클럽(회장 朴熙俊)은 지난 3월 12일 서울 삼성동 현대빌딩에서 44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제17차 동승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 모교 동양사학과 李成珪(사학65-72)교수가 초청돼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동기회는 올해도 분기별 정기포럼, 국내외 여행, 문화 관람, 송년 연극 공연 등의 행사를 열기로 했다.

4.5월 행사 캘린더

4월 29일(목) 오전 7시30분

• AIP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문의 : 878-9467)

5월 5일(수) 오전 10시

• 상대동창회 산행대회

모교 관악캠퍼스 노천강당

(문의 : 761-2278)

5월 7일(금) 오전 7시30분

• AMP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문의 : 880-6912)

5월 15일(토) 오전 10시

• 농생대동창회 상록의 날

모교 관악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

(문의 : 6300-8630)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許敏子作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 하고’, 제주점토·와목·투명유, 45×36×65cm, 2005.

〈작가약력〉

- ▲63~67년 모교 응용미술과 졸업
- ▲도예 개인전 13회
- ▲한국 현대도예 30년전

- ▲서울 현대도예 비엔날레
- ▲한국 현대도자전-세계도자기 EXPO
-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
- ▲한국 공예 100인 초대전
- ▲제주 도립미술관 개관기념전
- ▲현 제주대 산업디자인학부 명예교수

2009년도

(재) 관 악 회 결 산 공 고

대 차 대 조 표

200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산	37,433,672,815	부채	5,631,216
I. 유동자산	23,080,174,240		
(1)당좌자산	23,080,174,240	I. 유동부채	2,275,890
1. 현금및현금성자산	668,858,075	1.미지급금	382,580
2. 당기금융상품	21,223,433,818	2.예수금	1,893,310
3. 미수수익	448,323,070		
4. 미수금			
5. 부가세대급금	521,774,150	II. 비유동부채	3,355,326
6. 선급법인세	217,785,127	1. 퇴직급여충당금	3,355,326
(2)재고자산			
II. 비유동자산	14,353,498,575		
(1)유형자산	14,353,498,575	자본	37,428,041,599
1. 토지	624,290,410		
2. 차량운반구	36,915,470	I. 출연금	11,436,309,320
감가상각누계액	36,914,470	1.출연금	11,436,309,320
3.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II. 누적운영차익	25,991,732,279
4. 건설 중인 자산	13,727,404,493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1,997,409,118
(2)기타비유동자산	1,802,672	2.미처분누적운영차익	23,994,323,161
1. 보증금	1,802,672		
합 계	37,433,672,815	합 계	37,433,672,815

손 익 계 산 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사업수익	1,162,730,228	12.소모품비	4,467,500
1.이자수익	1,162,730,228	13. 지급수수료	15,691,820
2.배당금수익		14. 장학사업비	625,159,500
II. 사업비용	861,526,525	15. 잡비	
1.직원급여	103,456,960	III. 사업이익	301,203,703
2.퇴직급여		IV. 사업외수익	4,013,136,334
3.복리후생비	3,024,050	1.지연금	3,996,580,698
4.여비교통비	7,200,000	2.잡이익	16,555,636
5.통신비	5,053,175	V. 사업외비용	1,159,844
6.세금과공과금	85,432,400	1.유형자산처분손실	1,159,835
7.감가상각비	1,966,106	2.잡손실	9
8.보험료	3,136,740	VI. 법인세차감전이익	4,313,180,193
9.차량유지비	6,124,274	VII. 법인세등	
10.회의비	814,000	VIII. 당기순이익	4,313,180,193
11.사무용품비		IX. 주당손익	

위와 같이 공고함
2010. 3. .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 林 光 洙

약학대학동창회 鄭之碩회장
(한미약품 부회장)

한미약품 鄭之碩(약학60-64)부회장이 약학대학동창회 20대 회장에 선출돼 올해부터 2년간 동창회를 이끌어 간다. 서울 방이동 집무실에서 만난 鄭회장은 “제대로 된 사무실 마련, 회보 발간 정상화, 이 두 가지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전임 李金器회장님 회사의 사무실을 무료로 임대해 쓰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죠. 회관은 아니더라도 동문들이 가끔 들러 이야기 나누고 자유롭게 사무를 볼 수 있는 20~30평 규모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지,

“기금 모금을 시작해야죠. 우선 기별로 5백만원~1천만원 정도의 분담금을

책정하려고 합니다. 모금위원회도 조직하고요. 한창 일에 몰두하고 있는 젊은 동문과 원로 선배들에게 무리가 있을 테니 의무를 주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 동문들에게 계획을 말했더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3억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그 이상 모아지면 장학



“60~80년대 학번들은 조직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지부는 서울의 각 구별 모임과 인천, 부산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올해 24회, 34회 동기회가 졸업 30주년·20주년 행사를 하는데 여기를 포함해 모임이 열리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 협조를 구할 생각입

“동창회 사무실 마련·회보 발간에 전력”

기금으로 돌려야죠. 모금 활동을 하다보면 동창회도 조금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 기별, 지부 조직은 잘 돼 있나요.

니다.”

－ 그밖에 추진할 사업이라면,

“회보 발간을 정상화 해야죠. 1984년 창간 때부터 12회까지 3년간 책임을 맡

아 했기 때문에 회보에 대한 애정이 큼니다. 지난 몇 년간 회보가 연 2회로 축소됐더라고요. 반드시 4회 정도 발간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애정은 참여에서 나옵니다. 6천여 명의 회원과 5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창회가 번듯한 사무실 하나 없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사무실 마련 기금 모금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중앙고를 나와 모교에 입학한 鄭회장은 대학 졸업 후 林盛基(AMP 26기 한미약품 회장)동문과 공동으로 한미약품을 창업했다. 사장 등을 역임하며 R&D 분야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한미약품을 업계 리딩 기업으로 키우는데 일조했다.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한국바이오협회 이사로 활동 중이며 지난 2004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南)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SP동창회 金東洙회장
(한국수출입은행장)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동창회는 지난 1월 12일 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金東洙(행정대원80-83·7기)한국수출입은행장을 선출했다. ASP는 모교 경제연구소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해 갈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2001년 3월에 설립한 과정이다. 서면을 통해 동창회 현황과 활성화 방안 등을 들어봤다.

－ 동창회 소개를.

“2002년 11월에 창립돼 현재 18기 수료생까지 6백32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 정부 정책 결정자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로 구성돼 있죠. 동창회에서는 과정이 끝난 후에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 이 과정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 경우도 많았지만 재충전이 필요했던 시기에 지인의 소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ASP는 공직생활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돌아보며 다른 시각을 갖게 해주고, 다양한 사회 계층의 지도자들과 치열한 의견 교환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됐습니다.”



최근 최고지도자 인문학과과정(AFP)동창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콜마 尹東漢(2기)회장이 제2대 동창회장으로 선출됐다. AFP동창회는 5기까지 총 2백여 명의 회원밖에 배출되지 않았지만 인문학으로 뭉친 동문간 교류는 여느 모임 못지 않게 끈끈하다. 지난 3월 30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尹회장을 만나 향후 계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FP동창회 尹東漢회장
(한국콜마 회장)

72·3기)회장께서 수석부회장으로, 나다텔 金昇範(전자계산기공학78-82·2기)대표가 총무로 일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 AFP과정 인기가 높은데,

“경쟁률이 3:1 정도 된다고 해요. 순수하게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들어와서 그런지 매 기수에서 개근자가 10명 이상 나옵니다. 주임교수도 모든 수업에 참여하고요. 고위 과정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죠. 수료 후에도 기수별로 날짜를 정해 인문학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을 정도로 학구열이 대단합니다.”

－ 리더로서 덕목이라면,

“봉사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친목 단체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사회에

“세미나·동호회 등 교류 활성화”

이벤트를 마련해 리더에게 필요한 종합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새 임원진 구성은 됐는지,

“부회장에 송원중 前KT 전무, 총무에 넷스루 장진국 고문, 재무에 우리은행 이윤복 부장, 감사에 삼성물산 김태형 고문을 선임했는데 주로 7기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원회의는 매 분기별로 개최돼 동창회의 제반 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합니다.”

－ 리더로서 중요한 덕목이라면,

“업무를 속도감 있게 수행하는 것은 물론, 다른 구성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서로의 의견을 자주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회원들이 수시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세미나를 개최하고 리더들이 선호하는 취미 중심으로 소그룹별 동호회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회원들에게 한 말씀.

“지난 밴쿠버올림픽의 스피드스케이팅 부분의 금메달은 감독의 ‘FUN(Fun·Unique·Network) 리더십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동창회를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의 장을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동창회를 통해 ‘재미’와 ‘특별함’을 찾고 함께 ‘FUN’한 모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1955년 충남 서천 출생인 金회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1983년 모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 1997년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金회장은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2월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榮)

“인문학 포럼으로 내실 다져”

획 등을 들어봤다.

－ 2대 회장으로서 포부라면,

“초대 金禹植회장께서 동창회를 결성해 주셨으니 저는 인문학 최고위 과정답게 내용을 채우는 역할을 해야겠죠. 우리 공통의 관심사인 인문학 관련 포럼을 분기별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포럼 후 충분히 대화도 이뤄지도록 모임 시간도 저녁으로 하려고요. 5월 6일 성공회대 申榮福(경제59-63)석좌교수를 모시고 첫 포럼을 개최합니다.”

－ 그 밖에 다른 사업은,

“기존 사업인 힐리언스 선마을 가족여행과 송년회 등은 이어 가야죠. 기별로도 골프, 등산, 학술 모임이 진행되고 있어서 동창회 차원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원 선임은,

“대우정보시스템 鄭聖立(조선공학68-

대한 봉사죠. 시간을 뺏긴다고 거부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기업의 리더십도 봉사하는 마음, 솔선수범하는 자세, 겸손한 태도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경북 대구 출신인 尹회장은 계성고와 영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모교 경영대학원 수료 후 수원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제약 부사장을 거쳐 1990년 화장품 제조사인 한국콜마를 설립해 ODM(제조사 자체개발 주문생산) 대표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지난해 매출액은 1천5백35억원이며 4백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현재 강남경제인포럼과 한국상품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가족 가운데 아들 尹相現(농경제94-99)한국콜마 상무, 며느리 이지연(기약93-97)부천시향 객원연주자, 사위 李賢洙(사법92-96)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 동문이다. (南)

“전국 동시 지방선거 완벽히 치르도록 하겠다”

동문을 찾아서

梁 承 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과전 정부청사에 위치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전면에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라는 대형 래핑 광고물이 붙어있다. 이번 6월 2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8개 지방선거에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보내달라는 간절함이 배어 나온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인 梁承泰(법학66-70) 대법관을 지난 3월 29일 어렵게 만났다. 그는 후배 법관들에게 “법관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 재판하는 것이라면, 항상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진심 어린 당부의 말을 전했다.

대 담 : 본보 李相起는설위원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梁承泰위원장은

△1948년 부산 출생 △1966년 경남고 졸업 △1970년 모교 법학과 졸업, 제12회 사법시험 합격 △197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1986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989년 사법연수원 교수 △1993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99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9년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2001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2002년 부산지방법원장 △2003년 법원행정처 차장 △2003년 특허법원장 △2005년 대법원 대법관

– 작년 2월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후 큰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시겠어요. 곳곳에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라는 홍보 포스터가 붙어있는데.

“투표 참여율이 낮으니 좀 많이 참여해달라는 뜻이죠.”

–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면 좋겠지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묘안이 있다면.

“투표참여율이 낮은 20~30대 유권자들을 겨냥해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각종 홍보물과 인터넷·모바일·DMB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전투표제 도입과 주소지의 투표소에 구애받지 않고 선거구내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자투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부임하시고 나서 이것만은 꼭 하겠다는 게 있다면.

“지난 1년간 수요자 중심의 선거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는 점과 깨끗한 선거 풍토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 그리고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방문홍보단을 도입해 낮은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치러질 제5회 지방선거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부를 20년을 조명하고 그동안 다져온 우리 국민의 민주역량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사상 유례 없는 선거물량으로 선관위의 관리 부담이 늘어났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이번 선거를 완벽히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도입된 재외국민선거제도가 잘 시행되고 좋은 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재외국민선거 작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올해 10월 모의 선거를 할 계획입니다.”

– 재외국민선거는 언제부터 실시되나요.

“재외국민이 전 세계에 2백87만여 명에 이릅니다. 2012년부터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작년에 12개 나라 18개 공관을 방문해 각 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파악했고 재외선거국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 키 솔루션은 무엇인가요.

“선결과제는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위법사례를 어떻게 신속히 차단하는냐고 다음으로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들의 참여율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을 해외에 파견해 상주를 하게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 인원 증원이 필요하겠네요.

“인원 증원에 대해 정부의 일반적인 증원 억제 원칙과 맞물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해외 근무하는 데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해외직원 증원요구를 1백여 명 정도 요청했습니다. 어느 수준 이상은 보내줘야 미국과 일본 등에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재외국민들에 대한 현황조사도 하고, 그곳 사람들에게 선거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다고

다. 위원회에 사무처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있고 사무처에는 국무위원급 사무총장과 차관급 사무차장이 있습니다.”

– 전국 8개 동시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선거를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이번 선거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생각해 정당과 후보자 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덟 개 선거에 대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자 선택에 혼란을 겪을 수 있고, 교육감과 교육의원선거에서 이른바 ‘줄 투표’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선관위에선 돈 선거와 공무원 줄서기 등 중대선거범죄 중심으로 감시와 단속을 강력

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인력으로 모든 선거범죄에 신속히 대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신고·제보망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활동의지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포상금제도를 통한 내부 고발을 유도하고, 과태료 제도를 적극 알려 금품거래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 최근 논란이 된 트위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초 트위터를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이 융합된 형태로 보고,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식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당부했어요. 이는 현행 선거법의 해석에 따른 것이지 선관위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선관위가 선거에 관한 국민의 자유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 잘못 비쳐지고 있어 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트위터에 대한 안내자료를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불법행위가 없는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선관위 공식계정(nec3939)을 개설했습니다.”

– 인터넷 투표는 앞으로 이뤄질까요.

“직접투표는 투표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투표는 투표자가 과연 직접 투표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게 결정적인 흠이라 할 수 있죠. 지금 우편투표도 그 문제 때문에 일반적인 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작년에 네팔에 갔다가 수상을 역임하신 분을 만났는데 ‘한국은 선거가 많은 나라인데 참 잘하고 있는 나라’라고 칭찬을 해요.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제도를 아시아에 수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작년 8월에는 네팔, 방글라데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독일, 스웨덴 등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전파하며 국가 브랜드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선관위 안에 선거연수원이라고

수요자중심의 선거행정 서비스 제공

“우리나라 선거문화는 세계적 수준”

봐요. 외교통상부와도 다양한 협의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제로베이스에서 해야되는 게 아닌가요.

“원점에서 보는 게 있고 연장선상에서 보는 게 있는데, 이것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외국민선거는 사상 처음 실시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지난해 성과와 대비한다면 예산문제, 인원증원 문제 등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 2백87만여 명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재외국민 표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네요. 대통령선거 때 몇 십만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선거 때에는 아마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 선관위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9명의 위원을 두고,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하게 할 생각입니다. 현재 총 74개반 4백13명의 정예요원이 시·도 광역조사팀으로 편성돼 활동하고 있어요. 또 돈 선거 우려지역을 과열·혼탁선거구로 지정해 해당 시·도 위원회가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후보자 선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 색상을 구분하고, 규격을 다르게 제작하는 한편 다양한 언론매체를 이용해 투표방법과 절차를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 투표용지 교부방법도 신경을 써야겠네요.

“정당추천 지방선거와 연계한 기표를 방지하고자 1차로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너 장을 먼저 교부하고, 2차로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 5대 선거범죄를 단속하는 데 어려운 점은.

“후보자 수가 많아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



“제로베이스에서 재외국민선거 준비에 만전”

☑ 있습니다. 국내 사람도 많이 교육시키지만 외국에서 온 사람도 속식까지 하면서 교육을 받고 갑니다. 1996년 설치된 이후 선거·정당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간부, 교사, 학생에 이르기까지 민주시민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왔습니다.”

— 공정 선거문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시는지.

“영국 경제·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산하 연구기관인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006년에 이어 ‘민주주의 지표 2008’에서 한국의 선거과정을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1백65개 국가와 2개 자치령의 민주주의 발전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들과 같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2008년 아시아선거관리기관협의회(AAEA) 부회장국으로 선출돼 내년도 총회에서는 회장국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06년 이후 민주공고, 이라크, 캄보디아 등 29개국을 대상으로 선거관계자 연수를 실시하기도 했지요.”

— 얼마 전 대법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는데, 걱정할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일명 ‘묻지마 항소’에 대해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기관입니다. 대법원의 심리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대법관의 수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가 돼야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와 같은 기능과는 달리 단지 개별적인 하급심 판결을 다시 한번 심사해 달라는 이른바 권리구제형 상고가 너무나 많아요. 이 중 상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적은데도요. 원론적으로 볼 때 이러한 현실은 상고심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이러한 오래된 관행이나 고정관념이 이미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3심 재판에 대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재판은 3판2승제로 승부를 가리는 운동경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재판은 하나의 절차에서 모든 주장과 증거를 동원해 진지한 심리에 의해 양쪽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절차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항소 또는 상고는 그 재판에 특별한 하자가 있을 때에 허용되는 예외적인 절차일 뿐이지요. 서구식 재판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3심 재판의 의미가 잘못 인식돼 마치 재판은 본래 세 번 거듭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는 고정관념이 형성된 것이죠.”

— 재판과정에서 중요시하는 점이 있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관은 힘들고 지루해도 법정에서 당사자의 말을 인내심 있게 잘 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어에서 심리를 ‘hearing’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시사하



등산애호가 … 주말에 한강기맥 중주

“법관은 인내심·겸허한 자세 가져야”

는 바가 큼니다.”

— 법관이 되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신을 간섭 없이 펼칠 수 있다는 직업적인 속성에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사실 법관의 길은 매우 외롭습니다. 개인의 처신이 당사자의 신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부로 운신하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법관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어떤 권위를 가지고 외부에 표현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 후배 법관에게는 무엇을 강조하세요.

“저 보다도 한 층 뛰어난 소양과 감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더 가르칠 게 있을지… 다만 저의 젊은 판사시절을 회상하면 그때는 너무나 자신만만한 나머지 재판 당사자를 이해하고 자신이 그 당사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투영될까 하는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법관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 재판

하는 것이라면, 항상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 IMF시절엔 파산수석 부장으로 맹활약하신 바 있는데.

“파산수석부장을 맡았을 당시 회사정리사건이 폭주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부족해 힘들었죠. 그러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법정관리기업을 맡고 있는 관리인에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법정관리제도의 새로운 모델을 세울 수 있었어요. 10년이 지난 일이라 많은 부분 잊어버렸지만, 기아자동차 M&A를 성공시켜 정상기업으로 회복시킨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 최근 사법부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법관의 심정을 선배로서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법관들은 정말 고생과 노력을 많이 합니다. 밀려드는 사건에, 또 사건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러한 고충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사람은 적은 반면 어쩌다 보이는 부정적인 측면을 전체라고 보고 심하게 비난하는 데 대해 다들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가려고 합니다.”

— 만해상 심사위원은 어떻게 맡게 되셨어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만 아주 독실하진 않고요(웃음). 90년대 초에 설악산 등산을 갔다가 우연히 백담사 회주로 계시는 오현 스님과 조우해 그 분과 깊이 교류하게 됐어요. 마침 오현 스님께서 만해사업을 펼치고 계셔서 만해상 심사위원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시기에 청을 마다할 수 없었죠.”

—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추천할 만한 책이 있다면.

“앙드레 모르와가 지은 ‘미국사’와 박석순 교수 등 일본 전공 교수 네 분이 지은 ‘일본사’를 최근 읽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그간 미국의 건국정신과 그 철학에 대해 별로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참으로 일본역사에 대해 무시했구나’ 하고 느꼈어요.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두 나라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 가훈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가훈이라고 해서 물려받은 것은 없고, 선친께서 누구에게 일을 맡겨놓고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는 성격이 아니셨어요.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제가 좀 물려받지 않았나 싶어요.”

— 퇴직 후에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제가 산을 좀 좋아하는데, 공직에 있으면서 산에 가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15년 전 이야기인데 학교 다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몽블랑을 가지고 자주 그래요. 저도 참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보름이 걸린다고 해요. 도저히 보름이라는 말미를 낼 수 없어서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퇴직하면 그런 트레킹을 하고 싶어요.”

— 마지막 질문입니다. 법관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세계에서 법관이 제일 존경받는 나라는 영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법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경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가 보고 그게 아닌걸 알게 됐죠. 그 사람은 법관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법관이 된 겁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 재판을 하니까 그 법관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법관이 사법연수원을 나와 바로 법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틈이 없습니다.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는 법원에 대한 존경과 신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영미에서 사법만족도가 높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저는 후배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법에 관해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관계자로부터 ‘저 사람에게서는 재판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자신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동 하나 하나에 조심하고 겸허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젊을 때는 인식을 잘 못했어요. 나이 드니까 그때 제 생각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정리= 表智媛기자·사진= 金南柱기자)

사람은 주관이 강해서 자기 생각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승복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게 하나의 출발점이 돼서 과거의 분쟁이 종식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돼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오늘 출근길에는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李위원님 오시면 뭘 물어 보실까(웃음).”

— 그럼 주말엔 무엇을 하셨어요.

“산에서 1박2일 야영을 하고 왔습니다. 요즘 한강기맥이라고 남한강과 북한강을 둘로 가르는 산맥이 있습니다. 오대산에서 양수리까지 이어지는 1백60km 정도 되는 산맥인데, 구간을 나눠서 종주하고 있습니다.”

— 주말마다 산에 가시나요.

“주말마다는 못 가도 기회가 되면 산에

화제의 동문

NASA출신 모교 의대 金性完교수

“질병 조기진단 장치 개발이 목표”

美항공우주국(NASA) 랭리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 출신이 모교 의대 교수로 임용돼 주목을 받고 있다. 모교 의공학교실 金性完(전자공학81-85)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 외국인 교수 신분으로 모교에 돌아온 金동문은 의공학 연구와 강의 외에 인천 청라지구에 조성 중인 국책사업 ‘국제과학복합연구단지 개발프로젝트(BIT Port : 바이오·나노·IT 기술을 융복합 활용)’의 연구개발 책임도 맡았다.

최첨단 과학의 집합소인 NASA를 떠나 모교로 온 이유에 대해 金동문은 “주위에서 왜 가냐는 분들도 있었고 고민도 됐지만 늘 마음 한 구석에 품어왔던 의공학에 대한 꿈을 모교에서 펼칠 수 있다는 생각에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교로 오기까지는 의공학교실 金喜贊(전자공학78-82)주임교수가 많은 역할을 했다.

청라 과학단지 프로젝트 총괄

어린 시절 ‘6백만불의 사나이’를 보고 사이보그에 관심을 갖게 된 金동문은 가장 밀접한 학문인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의공학을 전공하며 인공심장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미국 특허를 받는데 공동 연구원으로 기여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NASA로 가게 됐을까?

“석사과정 당시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가 있었어요. 5년 정도 공부할 마음으로 건너가 UCLA에서 항공 분야 자동제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죠. 당시 스승이 자동제어의 권위자인 A. 발라크리슈난(A. Balakrishnan)교수셨는데, 항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제안을 받아들였죠. 경제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졸업 후 자연스럽게 항공사인 BAE(British Aerospace Engineering)사와 보잉(Boeing)사를 거

쳐 NASA에 들어갔죠.”

金동문이 9년 넘게 일했던 곳은 버지니아에 위치한 NASA 랭리 리서치센터. NASA의 전신인 NACA가 비행기 개발에서 우주선 개발로 전향한 후 10개 NASA 연구센터 중 가장 먼저 설립된 유서 깊은 곳이다. NASA는 시민권자가 아니면 정식 연구원이 될 수 없고 채용이 많지 않아 金동문도 7년을 기다려 들어갔다. 康善權(통신공학58졸)동문도 이 곳에서 일하고 있다.

UCLA에서 박사과정 때부터 NASA를 떠날 때까지 20여 년 동안 그가 했던 연구 분야는 비행기나 우주선에 이상이 생길 경우 문제를 빨리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동제어시스템을 만드는 일. 金동문은 NASA에서 했던 일이 의공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아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공학과 제가 했던 항공 분야의 기본 배경기술은 자동제어거든요. 이 분야에서도 헬스 메니지먼트란 용어를 써요. 항공기나 우주선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기술을 사람 몸에 응용할 수 있는 거죠.”

의공학은 크게 다섯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인공심장, 인공 다리 등의 인공 장기, 수술 로봇 등 수술 장비, MRI, CT, PET 등의 진단 기기, 의료 전산 프로그램, 기기 관리 보수 등.

이 가운데 金동문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수술 로봇과 질병 조기진단 센서를 개발하는 일이다.

“조기진단 센서는 몸 안에 칩을 넣어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병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동제어와 원격기술을 이용해서요. 그 기술을 응용하면 암, 알츠하이머 등도 조기에 진단해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죠. 아직 조금은 꿈같은 일이지만 한 두 가지 질병에 대해



서는 조기진단할 수 있는 장치를 꼭 개발하고 싶어요.”

金동문에게 의공학의 꿈을 심어준 모교 의공학교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융복합 개념 학과다. 지난해 30년사를 출간하는 등 우리나라 의공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병원 경영에 도입된 전산시스템의 개발, 첨단 의료기기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확립, 한 국형 인공심장 개발, 의료장비의 EMR 연동시스템 개발, 의공학과 전체 업무의 ISO 9001 인증 등 많은 일을 했다. 그럼에도 아직 모교에는 의공학이 학부과정에 개설돼 있지 않다. 대학원 과정도 의대와 공대의 협동과정으로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다.

金동문은 “의대와 공대의 협력 하에 공식적인 대학원으로 전환하려고 구상 중이며 학부개설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金동문이 한국에서 맡은 또 다른 미션은 청라 국제과학복합연구단지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주일에 2~3일은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52만8천㎡ 규모의 대지에 바이오, 나노, IT 관련 10개의 연구소를 세우고 관련 기업과 인력을 유치하고 어떻게 하면 각 연구소들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기획하는 일이다.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시작돼 내년 가을경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모교와 KAIST, 인천시가 참여했다. 金동문은 “여러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연구단지를 세우는 것으로 알지만 이 곳이 주도적인 연구단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 모든 일이 벅차지 않는다는 질문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즐겁게 일하고 있

다”며 “제가 하는 일이 모교와 국가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신입 교수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지적을 잊지 않았다.

“저야 말이 통하니까 조금 낯지만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신입 교수들을 위해서는 정착할 때까지 보다 나은 재정 지원과 민원 및 행정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임용 절차를 간소화해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한 듯합니다.”

T-50 고등훈련기 개발에도 참여

金동문은 서울 명지고 졸업 후 모교에 입학했다. 학창시절 공대 테니스동아리 회장을 맡아 총장배 대회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며 연극 동아리 멤버로도 활동했다. BAE사에서 군용 유인항공기시스템 선임 개발팀장과 보잉사의 수석 공학자로 일하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무인항공기 등의 자동 항법제어 장치 개발에도 참여했다. 세계 최대 엔지니어협회인 전기전자공학자회(IEEE) 편집위원으로 10년간 활동했으며 美항공우주학회 어소시에이트 펠로이기도 하다. 부인과 사이에 외아들이 있으며 형이 한국과학기술원 金性鎭(기계공학78-82)교수다. (南)



‘모교 개교 원년 조정’ 공청회 개최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

모교 소식

모교 기획처는 지난 3월 29일 관악캠퍼스 행정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모교 개교 원년 조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본회가 작년 3월 20일 정기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

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모교 개교 원년 재조정 건의안’을 모교에 전달한 후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金信福부총장, 李根寬기획부처장, 李泰鎭 명예교수를 비롯한 보직교수 및 단과대 학장과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尹勤煥·李海遠·

李相赫·孔大植·辛鉉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모교 국사학과 李泰鎭 명예교수가 모교 창립과정과 각 단과대학 및 국내외 주요 대학의 개교 원년 설정 현황, 고종시대 관립고등교육기관과 경성제국대학 설립 배경 등을 파워포인트로 발표했다.

교수협의회를 대표해 법대 金度均교수는 “개교 원년 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는 모교의 국제적 위상을 올리는 데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대 曹國교수는 “개교 원년 조정은 1백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여러 단과대학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됐다”며 “이 가운데 관립고등교육기관 중 가장 앞선 법관양성소의 개교일인 1895년 5월 6일(양력)을 택한 것에 대해 역사적으로 충분한 자료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대 黃尙翼교수는 1800년대 말에 설립된 모교 의학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과대학 역시 개교 원년을 언제로 정할 지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대 鄭根植교수는 “모교 역사를 재정립할 경우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 및 국가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개교 원년 조정 이후에 대한 사항도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은 세계 명문대학을 방문할 때마다 짧은 개교 역사로 인해 서울대의 높아진 위상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외에서 심사하는 명문대 순위에서 그 대학의 역사와 전통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으면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은 “총동창회에서 모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신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운동을 펼치며 ‘正統과 正體性’ 단행본까지 발간하게 됐다”며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정서상으로도 역사적인 DNA가 연결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개교 원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본회 李相赫부회장은 “모교가 법인화가 되는 길목에 놓여있는 데, 개교 원년을 찾아 역사성의 날개를 달아준다면 멋진 비상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개교 원년 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表)



金旻榮·禹敬子·崔鍾元·鄭海元·權薰貞·林光洙·李長茂·金信福·金夏奭·朴杉沃등문

종합교육연구단지 준공

생활대·보대원·행대원 등 입주

모교(총장 李長茂)는 지난 3월 12일 관악캠퍼스 테니스코트 부근에 신축한 종합교육연구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李長茂총장을 비롯해 본회 林光洙회장, 孔大植부회장, 생활과학대학동창회 禹敬子회장, 보건대학원동창회 金旻榮회장, 행정대학원동창회 金基炳회장, ACAD동창회 李廷益회장, AIC동창회 李世漢회장 등 모교 보직교수 및 관계자 2백여 명이 참석했다.

2003년에 착공한 종합교육연구단지는 2014년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李長茂총장과 보직교수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4백31억원이 집중 투자돼 이번에 준공하게 됐다.

李長茂총장은 식사에서 “보직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학(원)장님들의 노력으로 정부와 각 기관으로

부터 예산을 확보해 예상보다 빨리 훌륭한 건물을 완공하게 됐다”며 “이 곳에서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글로벌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 林光洙회장은 “중요한 시기에 개관하게 된 종합연구단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교육기관이 되길 바란다”며 “국내외 대학교육의 커다란 금자탑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종합교육연구단지는 연면적 55,175㎡ 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4개동으로 구성됐으며, 생활과학대학(222동)·보건대학원(221동)·행정대학원(57-1동)·대학원교육연구 시설(220동)이 입주했다.

이곳에는 주로 교수연구실과 다목적 강의실, 자가발전시설인 태양열과 LED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어 지속가능 그린캠퍼스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치과병원

국내 최대 규모로 단장

모교 치과병원(원장 張英一)은 신관 증축 및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3월 26일 모교 연건캠퍼스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치과병원은 2006년 5월부터 약 6백억원을 투입해 신관을 면적 14,908㎡ 대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3층으로 증축하고, 본관도 전면 보수해 총 연면적이 기존의 1.7배로 늘어나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을 갖추게 됐다.

張英一원장은 식사에서 “병원이 2004년 특수법인으로 출범해 이번 공사로 훌륭한 하드웨어를 구축하게 됐다”며 “우수한 의료진이 최상의 진료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게 됨으로써 세계적인 병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光鉉센터장, 姜泰晉학장, 李長茂총장, 金貞植이사장,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일본대사, 교과부 郭昌信학술연구정책실장

공과대학 해동학술관 개관

한일 첨단 공학기술 교류의 장

모교는 지난 3월 3일 관악캠퍼스 공과대학 32동 부근에서 해동일본기술정보센터(해동학술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해동학술관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첨단 공학기술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효율적인 산학 협동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신설된 공대 부속시설이다.

이 센터는 해동과학문화재단 金貞植(전자공학48-56 본회 부회장)이사장이 35억원을 출연해 신축됐으며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가졌다.

해동학술관에서는 일본의 첨단 공학기술 도서를 대출할 수 있으며 초·중급 일본어 맞춤형교육이 제공된다.

金貞植이사장은 축하에서 “일본의 실용 기술이 우리나라 공학과 기술발전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

다”며 “이 센터를 통해 두 나라간 기술 교류가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대 컴퓨터공학부

관악구에 컴퓨터 기증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학부장 金炯周)는 최근 金信福부총장, 관악구 朴龍來부구청장, 金炯周학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관악구청에서 ‘2010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기증식’ 행사를 가졌다.

컴퓨터공학부는 관악구청에서 실시하는 ‘사랑의 PC 보급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컴퓨터 80대를 관악구 사회복지시설 20여 곳에 기증했다. 기증 컴퓨터들은 공과대학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관악구 저소득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에 활용될 예정이다. (榮)

			
성명	成樂寅(행정69-73)	吳然天(정치70-74)	吳世正(물리71-75)
소속	법학부 교수	행정대학원 교수	물리천문학부 교수
학력	경기고, 佛파리제2대	경기고, 美뉴욕대	경기고, 美스탠퍼드대
경력	법대 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행정대학원장 모교 특별재정위원장 지경부 산업발전심의위원장	자연대 학장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위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총장후보 지명 …5월 3일 투표

成樂寅·吳然天·吳世正교수



총장후보 초빙위원 : 王圭彰·邊昌九·權寧傑·李峻圭·林光洙·金商周·李吉女·趙完圭·郭秀一·李仁浩·李鎭仁·余禎星·李仁源등문

모교 총장후보초빙위원회(위원장 李鎭仁)는 지난 3월 27일 제 25대 총장후보대상자로 법과대학 成樂寅(행정69-73)교수, 행정대학원 吳然天(정치70-74)교수, 자연과학대학 吳世正(물리71-75)교수를 지명해 발표했다.

모교는 이번 총장후보대상자 지명을 위해 새로운 절차를 도입했다. 우선 각 단과대학에서 선출된 대표 등 46명의 총장후보선정운영위원회(위원장 李峻圭)를 구성하고, 후보선정운영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총장후보초빙위원 13명(선정위원회 위원장 포함 학내인사 7명, 학외인사 6명)을 선출했다.

초빙위에서는 후보 지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총장초빙 공고를 게시했다. 이후 초빙공고를 통해 지원한 7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개별 인터뷰 등 엄정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3명의 후보대상자를 선정했다.

成樂寅교수는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인화 초기 불안정성을 줄이고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吳然天교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아시아권 중심대학으로 모교를 발전시키겠다고 학문 후속세대를 자체 양성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吳世正교수는 모교 ‘교육’ 기능에 대해 강조한다.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로서 학생 교육에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총장후보 3명은 모교 총장후보선정운영위원회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총장 선거는 오는 5월 3일 모교 재직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1표)과 평의원회가 투표권을 인정한 직원(0.1표)이 참여하는 직접·비밀 투표에 의해 총장후보자 2명을 선출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명품강연 함께 들어요” 일반인 대상 강좌 풍성

관악캠퍼스에서 봄을 맞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가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문대학(학장 邊昌九)은 ‘서울대 인문강좌’를 개설하고 5월 13일과 6월 10일 오후 2시 박물관 강당에서 모교 교수의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880-6046〉

또 인문대 철학사상연구소(소장 趙琨秀)는 앞으로 2년 동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공개강연을 갖는다. 4월 28일에는 모교 철학과 교수들이 서양철학 분야와 불교 철학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880-6218〉

사회과학대학 여성연구소(소장 韓貞淑)는 지난해에 이어 ‘일하는 여성을 위한 시민 인문강좌’라는 주제로 4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멀티미디어강의동(83동 505호)에서 강연을 진행한다. 〈문의 : 880-8951〉

“미국서 기부해도 면세 혜택”

발전기금 미주재단 자격 취득

모교 발전기금 미주재단(이사장 吳仁錫 행정58-62 본회 부회장)이 지난 2월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면세 법인 자격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주재단에 기부하면 세금 면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뉴욕에 설립된 미주재단이 지난 2008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금한 기부금에도 세금 면제 혜택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존 기부자를 포함한 미주 동

문들의 기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미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면 누구나 미주재단을 통해 미국 국세청의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해외 지역에서는 해외 은행에서 발행한 개인 수표를 발전기금 앞으로 보내거나 발전기금 계좌로 해외 송금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이탈리아대사관·문화원

미술관에 관화작품 기증

지난 3월 9일 주한 이탈리아대사관과 문화원이 공동으로 모교 미술관에 관화 작품을 기증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모교 李長茂총장, 마시모 레제리 이탈리아 대사를 비롯해 金夏奭특임부총장, 미술대학 章洙弘학장, 鄭馨民미술관

장, 루초 잇조 이탈리아 문화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증 작품인 ‘꿈 1’(Sogno 1, 1994년 作)은 세계 최고의 관화 공방인 2RC와 이탈리아 조각가 아르날도 포모도로가 동판 위에 에칭과 부조 기법을 사용해 공동 제작한 대형 관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예술적·기술적 측면에서 관화 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榮〉

50억 이상 기금 출연자에게 거주형 캠퍼스 헌정합니다

모교 발전기금은 올해 6월까지 ‘핵심 모금 사업’에 50억 이상을 출연한 기부자 7명을 선정해 7월 완공 예정인 신축형 기숙사 7개동에 각각 기부자 명의로 기숙사 1개동을 명명해 드립니다.

- ◆헌정대상 : 2010년 6월까지 ‘핵심 모금 사업’ 50억원 이상 출연자
- ◆헌정내용 : 기부자의 아호 또는 희망명칭으로 기숙사 1개동에 명명 (ex. 〇〇〇홀)
 - 해당 동 1층 로비에 기부자 부조와 공적 기록물 설치
 - 2010년 캠퍼스 개관식과 함께 헌정식 거행
- ◆관련문의 : 02)871-1620
- ※ 본 헌정 캠페인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李 長 茂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년교수 프로필

모교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교수 23명의 정년· 명예퇴임식이 지난 2월 25일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열렸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安三煥교수·국어독문학

62년 모교 독어독문학과에 입학해 66년 졸업, 75년 독일 본대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교수를 거쳐 91년 모교에 부임해 독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모교 인문대 교무부학장·독어독문학과장, 한국독어독문학회 회장, 한국독어독문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崔明玉교수·국어국문학

65년 모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 73년 졸업, 82년 모교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남대 교수를 거쳐 86년 모교에 부임해 국어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국어국문학과장, 한국방언학회 회장, 국어학회 총무이사, 진단학회 평의원 등을 지냈다.



林宗大교수·국어독문학

63년 모교 독어독문학과에 입학해 67년 졸업, 82년 오스트리아 빈대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숙명여대와 서강대 교수를 거쳐 92년 모교에 부임해 독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모교 독일학연구소장, 한국독어독문학회 회장, 아시아독어독문학자대회장 등을 지냈다.



李東烈교수·불어불문학

64년 모교 불어불문학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75년 프랑스 몽펠리에대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주대와 한국의국어대 교수를 거쳐 82년 모교에 부임해 프랑스 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모교 불어불문학과장, 한국18세기학회 회장, 한국 불어불문학회장 등을 지냈다.



金文煥교수·미학

64년 모교 미학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8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4년 모교에 부임해 현대독일미학, 예술사회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모교 예술문화연구소장, 한국미학회 회장, 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 한국연구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李正胤교수·정치학

63년 모교 정치학과에 입학해 67년 졸업, 79년 미국 워싱턴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거쳐 81년 모교에 부임해 정치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모교 정치학과장, 대학신문사 주간, 한국정치학회 회장, 한국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지냈다.



韓相震교수·사회학

63년 모교 사회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9년 미국 서던일리노이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해 정치사회학과 시민사회론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외규장각 고서반환협상 대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장 등을 지냈다.



朴聖炫교수·통계학

64년 모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74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램프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미시시피주립대 교수를 거쳐 77년 모교에 부임해 통계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모교 자연과학대 학장, 평의원회 의장, 한국통계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鄭學聲교수·생명과학

65년 모교 식물학과에 입학해 72년 졸업, 85년 미국 테네시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테네시대 연구원을 거쳐 89년 모교에 부임해 미생물분류학 및 균학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모교 미생물학과장, 한국균학회 회장, 한국미생물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韓景子교수·간호학

63년 모교 간호학과에 입학해 67년 졸업, 87년 이화여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부임해 아동간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간호대 학장보, 간호과학연구소장을 비롯해 모자간호학회 회장, 한국가정간호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李厚喆교수·재료공학

63년 모교 금속공학과에 입학해 67년 졸업, 77년 미국 브라운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플로리다대 연구원을 거쳐 78년 모교에 부임해 금속재료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모교 신소재공동연구소장, 금속공학과장, 한국전자현미경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李浩鐵교수·식물생산과학

63년 모교 농학에 입학해 67년 졸업, 7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에 부임해 작물생태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교수협의회 부회장, 농생대 부속농장장, 한국작물학회 회장, 세계작물학회 조직위원장 등을 지냈다.



金貴坤교수·조경시스템

63년 모교 임학에 입학해 67년 졸업, 85년 영국 런던대에서 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에 부임해 환경생태계획학과 생태복원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국제경관생태공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 등을 지냈다.



張秉郁교수·조경시스템

64년 모교 농공학과에 입학해 69년 졸업, 82년 미국 럿거스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6년 모교에 부임해 지역시스템공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생물자원공학부장,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장을 비롯해 한국농촌계획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李溫竹교수·윤리교육

63년 서울여대 사회학과에 입학해 67년 졸업, 79년 미국 듀크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여대와 이화여대 교수를 거쳐 81년 모교에 부임해 북한사회 및 통일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모교 국민윤리교육과장, 한국국민윤리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李昌雨교수·수의학

63년 모교 수의학과에 입학해 67년 졸업, 80년 모교 대학원에서 수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수의임상병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모교 수의대 동물병원장을 비롯해 한국임상수의학회 회장, 세계소동물수의사회 총회 유치위원장 등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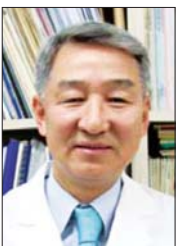
李榮純교수·수의학

72년 서울시립대 수의학과 졸업, 78년 일본 도쿄대에서 수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도쿄대 연구원을 거쳐 79년 모교에 부임해 수의공중보건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모교 수의대 학장·동물병원장, 한국독성학회 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을 지냈다.



尹惠淑교수·제악학

62년 모교 악학과에 입학해 66년 졸업, 71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원을 거쳐 74년 모교에 부임해 천연물화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천연물화학연구소장, 한국생악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金有鎔교수·의학

63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69년 졸업, 80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내과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모교 의학도서관장, 내과학교실 주임교수, 아시아·태평양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회 회장, 국제전식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崔 鎬교수·의학

63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69년 졸업, 79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에 부임해 소아신장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모교 소아과학교실 주임교수, 모교 병원 소아진료부 원장, 대한소아과학회장, 국제소아신장학회 위원 등을 지냈다.



曹弼圭교수·의학

64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87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에 부임해 신경외과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모교 신경외과학교실 주임교수, 국제소아신경외과학회 회원관리 이사, 대한신경외과학회장·이사장 등을 지냈다.



金聖德교수·의학

65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81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마취통증의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모교 마취통증의학교실 주임교수,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장, 대한마취학회 이사장, 대한의학회장 등을 지냈다.



俞炳林교수·환경조경학

63년 모교 토목공학과에 입학해 67년 졸업, 76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조경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부임해 조경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환경대학원장, 환경계획연구소장을 비롯해 한국조경학회 회장, 한국조경학협회장 등을 지냈다.

콩트 릴레이

99%의 블루제이를 위해

崔 再 卿(국문90-95)소설가



미국에 와서 처음 사귄 친구는 사람이 아닌 새였다. 말도 안 통하고 타고 나갈 차도 없어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켓에 음료수를 사러 가던 길이었다. 넓은 잔디밭에 가로놓인 좁다란 아스팔트길을 걸어가는 동안 뭔가 잠시 나의 시야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돌아보면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잔디밭길이 끝나고 기차길 옆 덩불이 늘어선 길로 접어들 무렵에야 그 겹 많은 스토크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흰색, 하늘색, 연한 파랑, 연보라색으로 이뤄진 깃털에 간간이 까만 선으로 포인트를 준, 세련된 빛깔의 새였다. 그

넌과 블루제이 찾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덩그러니 홀로 선 전나무 옆을 지나다 카디널 울음소리를 들었다. ‘암 프리티 프리티 프리티... 암 프리티 프리티 프리티...’ 노래하듯 선명한 멜로디가 있는 그 소리는 분명히 카디널이었다.

나는 살금살금 다가가 나무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나뭇가지 속에 숨어 노래하던 새는 의외로 카디널이 아닌 블루제이였다. 가장 높은 음을 내야 하는 첫 번째 ‘프리티’를 할 때는 성악가처럼 가슴과 고개를 높이 쳐들며 반동을 쳤다. 다른 새의 소리를 여러 가지로 흉내내는 새는 ‘모캬버

유코는 복도를 중심으로 나의 맞은 편 집에 사는 드라마스쿨 대학원생이다. 아파트 오리엔테이션에서 잠시 만나 간단한 인사를 나눴을 뿐 서로에 대해 아는 건 없었다. 일단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서 어지러진 거실을 대충 치웠다. 유코는 아무 말 없이 창가로 걸어가 햇빛을 반사하며 내리는 눈을 흘린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동향집이 더 뷰가 좋네요. 일출이 아름답겠어요. 우리집은 서향이라 석양은 좋은데, 오전에 이 집처럼 햇빛이 잘 들지는 않아서 훨씬 추워요. 저렇게 내리는 눈을 보면 차르르 차르르... 하는 금속성의 효과음을 넣어주고 싶어요. 아주 작은 핸드벨이 내는 높고 낭랑한 소리처럼요.”

보아하니 아침도 안 먹은 것 같아 마침내가 먹으려고 오븐에서 구워둔 고구마를 꺼내고, 빈티지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에 커피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다. 미니 도자기 주전자에 우유를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웠다. 커피가 끓어오르는 동안 살짝 데운 우유를 거품기로 빠르게 휘젓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기계로 만드는 거품처럼 발이 가늘지는 않지만, 커피와 어우러질 때 그냥 우유보다는 훨씬 고소한 맛을 낸다.

유코도 단순히 커피를 빌리러 온 건 아

세상은 살만하다고 외치는 이 사람,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걸까? 가까이서 보니 머리뿌리 쪽에 흰머리들이 꽤 많이 올라온 것이 젊게 보이려고 검은색으로 염색한 모양이었다. 화장하지 않은 얼굴에는 기미와 주름이 자글자글했다.

“지인 씨, 오늘 은혜 잊지 않을게요. 담번에는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와인 마셔요. 제가 사실 잠시 와인 공부를 하려고 프랑스 보르도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인을 약간은 알아요.”

왜 소믈리에가 되지 않았냐고 묻자 유코는 허탈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혀와 코가 발달해서 와인 소믈리에가 될 자질은 충분했죠. 문제는, 너무 빨리 취해버린다는 것. 다른 술은 좀 세다고 자부했는데, 이상하게도 하우스와인에는 약해서, 취해버리면 입이 얼얼해지면서 그 맛이 그 맛 같고, 향기도 잘 구분할 수 없거든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포도 기르기, 포도 따기, 품종이랑 토양 공부한 것이 다 소용없었죠. 결국 집을 싸서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사실 소믈리에 공부를 결심하기 전까지는 동경에서 5년간 전문상담가로 일했었어요. 주로 문제가정 상담을 많이 했는데, 남편한테 매맞고 목에 칼자국 생긴 여자들을 5년간 다루다보니 제가 우울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상담가는 냉정해야 하는데, 꿈을 꾸면 내가 그 여자들이 돼있고, 거리에 걸어다니는 남자들이 이중인격자들만 보이고...; 그 직업에 너무 빠져버렸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웃겨요.

보르도에서 돌아온 후 오랜 남자친구랑 결혼을 했고, 한동안 착실한 전업주부로 지냈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심심하더군요.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재미로 연극을 배우다가 재능을 인정받아 지역 극단에서까지 일하게 됐어요. 전업배우가 된 거죠. 이번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극중 상대배역의 남자에게 빠져버렸죠. 나보다 한참 어린 유부남이었는데, 나의 역할을 사랑하는 그에게서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발견한 거죠. 결국 주변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남편에게는 이혼 당하고...; 모든 인연의 고리를 끊고 싶어서 이곳 드라마스쿨에 지원해서 도망쳐 온 거죠. 나 자신으로부터의 도망이랄까...”

유코는 비어버린 커피 잔을 아쉬운 눈으로 들여다보았다. 고구마는 더 남았지만, 고구마가 이미 식은 데다 커피 없는 고구마는 단맛이 너무 강해 싫은 모양이었다.

“이곳에 왔을 때 너무나 우울해서, 이제 내 인생에서 이전과 같이 뭔가에 빠져 행복을 느끼는 일은 다시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저 눈과 군고구마와 카페라떼의 완벽한 조합이 ‘이건 분명 행복이다’ 싶은 감각을 다시 일깨워주네요. 저 너무 잘 빠져버리는 사람이죠? 이런 내가 싫은데, 어쩔겠어요? 그래서 더 자주 불행해지지만, 그래서 더 자주 행복해지니.”

유코가 돌아간 후 나는 다시 한 번 도감을 펼쳐 블루제이를 찾았다. 그동안 읽지 않았던 하단 박스에 작은 글씨로 이런 설명이 적혀 있었다.

‘블루제이가 다른 새의 둥지에서 알을 훔쳐먹는다는 설이 사실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몇몇 과학자가 블루제이의 위장에 든 먹이들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1%의 블루제이의 위에서만 다른 새의 알 성분이 발견됐다. 99%의 블루제이는 결백하다.’

“

블루제이가 다른 새의 둥지에서

알을 훔쳐먹는다는 설이 사실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몇몇 과학자가

블루제이의 위장에 든 먹이들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1%의 블루제이의 위에서만

다른 새의 알 성분이 발견됐다.

99%의 블루제이는 결백하다.

”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서양화02-07)

새의 이름이 ‘블루제이’라는 걸 알게 된 건 나중에 버드와처인 과 친구 케이시에게서 작은 도감을 얻은 후였다. 내가 블루제이의 아름다움을 칭송했을 때, 케이시는 그 다지 동의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 새의 진짜 깃털 색을 당신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잠시 햇빛을 받을 때만 빛을 반사해서 그런 색깔을 낼 뿐, 비 오고 흐린 날이나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새의 색깔은 어두운 회색이지. 게다가 다른 새의 둥지에서 알을 훔쳐먹는 야비한 새라고. 몰래 매 울음소리를 흉내내서 다른 새들이 다 도망치고 나면 그때 판 새들의 둥지를 덮치는 거지.”

차라리 카디널을 좋아하는 게 어때? 새 빨간 색깔이 아름다운 데다, 부부금슬이 좋아 늘 함께 다니고, 울음소리도 특출나게 아름답거든. 잘 들어봐. 맑고 낭랑한 음색으로 ‘아임 프리티 프리티 프리티~’라고 노래하지. 좀 오만한 감은 있지만 예쁜 건 사실이야.”

케이시의 가르침 덕분에 카디널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게 됐다. 심심할 때면 아파트 주변의 잔디밭과 숲을 산책하면서 카디

드’이고, 블루제이가 흉내낼 수 있는 건 오로지 매뿐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블루제이에 대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게다가 주변에 다른 나무도 새도 없는 곳에서 하필이면 카디널 소리를 흉내내다니.

평소 화려하던 모습의 유코가 화장기 하나 없는 부스스한 얼굴에 뽀테 안경을 쓰고 운동복 차림으로 내 아파트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했다. 순간 나도 모르게 한국에 있을 내 한국 지인들의 명단을 빠르게 훑고 있었다.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은 같은 동양인이 봐도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녀가 유코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정작 그녀와 닮은 한국친구 대신 블루제이를 떠올렸다.

“밖에 눈이 오잖아요. 기온이 낮는데 하늘은 맑고, 저 멀리 걸친 구름이 눈가루를 바람에 실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눈의 입자가 결정 모양 그대로 햇빛을 반사하며 휘날리고 있어요. 저것 보세요. 반짝 반짝 거리죠? 저걸 보니 갑자기 코끝에 구수한 커피 향이 떠올라서요. 그런데 커피가 마침 다 떨어졌지 뭐예요.”

닌 듯 싶었다. 내가 커피를 끓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서. 나는 설탕을 타지 않고, 우유 거품만 부은 커피를 식탁에 놓았다. 유코는 오라는 말도 하기 전에 커피 향기에 흘린 듯이 식탁으로 뛰어왔다. 은박호일을 벗기고 두 손으로 부러뜨리자 김이 솔솔 나는 고구마가 구수한 향기와 함께 노오란 속을 드러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아, 이렇게 아름다운 날 홈메이드 카페라떼에 군고구마라니! 지인 씨는 천재예요. 맛도 끝내주네요. 멋진 공합이네요. 고구마의 단맛이 커피의 쓴맛을 중화시키고, 고소한 맛을 증가시키네요.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커피의 쓴맛이 고구마의 지나친 단맛을 씻어가 주네요! 오 행복해라. 세상은 살만해요. 세상은 살만해요.”

유코는 말을 하면서도 연신 고구마와 커피에 코를 가져다 대고 향기를 맡았다. 고구마와 커피를 입보다는 코로 먹는 것 같아 보였다. 유코의 찬사는 듣기 좋았다. 맛을 모르는 사람을 위한 요리처럼 재미없는 게 있을까. 군고구마 한 조각, 커피 한 잔에

동 정

수 상

▲安秉勳(행정57-61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본회 부회장)= 지난 3월 10일 한림대 일송기념사업회로부터 제5회 일송상 수상.

▲朴漢植(정치59-63 미국 조지아대 교수)= 지난 3월 15일 한반도 평화 등에 기여한 공로로 모아하우스대로부터 ‘간디·킹·이케다 평화상’ 수상자에 선정.

▲白聖基(의학59-63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최근 열병합발전소와 폐수처리장 개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朴紀正(사회61-68 전남일보 고문)= 최근 건강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공로패 수상.

▲崔鴻圭(교대원65-67 중앙대 명예교수)= 지난 3월 24일 중앙대 출신 문인들로 구성된 중앙문학회로부터 제15회 중앙문학상 수상.

▲李承奎(의학67-73 울산대 교수)= 지난 3월 16일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제3회 아산의학상 수상.

▲金鍾勳(건축69-73 한미파슨스 회장·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이사장)= 지난 3월 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2010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미래경영부문) 수상. 또 24일 매경이코노미 선정 ‘2010년 한국의 100대 CEO’상 수상.

▲曹珪鉉(의학71-77 KAIST 교수)= 지난 3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수여하는 제13회 젊은 과학자상(공학 분야) 수상.

▲李用熙(물리73-77 KAIST 교수)= 지난 3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수여하는 제12회 한국과학상(물리학 분야) 수상.

▲吳禹澤(제약74-78 모교 약학과 교수)= 지난 3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수여하는 제12회 한국과학상(생명과학 분야) 수상.

▲尹景炳(화학75-79 서강대 교수)= 지난 3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수여하는 제12회 한국과학상(화학 분야) 수상.

▲康炫培(수학78-82 인하대 교수)= 지난 3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수여하는 제12회 한국과학상(수학 분야) 수상.

▲朴鍾逸(수학82-86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지난 3월 23일 포스

코칭아카데미로부터 제4회 청암과학상 수상.

▲徐甲亮(화학공학92-96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지난 3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수여하는 제13회 젊은 과학자상(공학 분야) 수상.

▲張亨碩(일명 장훈·디자인99-03 영화감독)= 지난 3월 26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제46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의형제’로 영화부문 감독상 수상.

▲李義鉉(AIP 20기 대일특수강 대표·중앙대 겸임 교수)= 지난 3월 17일 제37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인 사

▲崔玟休(임학55-59 강원대 초빙 교수)= 지난 3월 2일 임기 2년의 사단법인 한국산림정책연구회 회장에 재선임.

▲洪東善(임학56-6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앙회 명예회장·영동지부동창회장)= 지난 3월 22일 우리콩 청국장 제조회사인 두리기식품 회장에 취임.

▲李炳驪(농학57-63 모교 식물생산과학부 명예교수·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최근 한국불루메리협회 제3대 회장에 재선임.

▲柳莊熙(경제59-63 이화여대 명예교수)= 지난 3월 26일 대통령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에 임명.

▲卞柱仙(영어교육60-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사대동창회장)= 지난 3월 24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총회에서 제7대 회장에 재선임.

▲金仲秀(경제66-73 駐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대사)= 지난 4월 1일 임기 4년의 한국은행 총재에 취임.

▲梁在涉(동물67-71 前한국유전학회·대구대 교수)= 지난 3월 1일 대구대 대학원장에 취임.

▲朴在甲(의학67-73 前국립암센터 원장·모교 외과학교실 교수)= 지난 4월 2일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국립중앙의료원 초대 원장에 임명.

▲沈之淵(정치68-75 前국회운영제도개선위원장·경남대 교수)= 지난 3월 8일 국회 입법조사처장

(차관급)에 임명.
▲李世震(행정68-73 조은사람상 임고문)= 최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사무처장에 취임.

▲姜天錫(사회69-76 조선일보 주필·본보 논설위원)= 지난 3월 19일 조선일보 주필·편집인 겸 전무이사에 선임.

▲金明愛(간호71-75 모교 병원간호부장)= 지난 3월 4일 병원간호사회 총회에서 제19대 회장에 선출.

▲柳一相(신대원72-74 건국대 교수)= 지난 3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宋熙永(영문74-78 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 지난 3월 19일 조선일보 논설주간(이사)에 선임.

▲金亮宇(경제74-78 前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최근 SK경영경제연구소 부소장 겸 경제연구실장에 선임.

▲朴炳柱(의학74-80 모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지난 3월 11일 국제약물역학회(ISPE) 학술지(PDS)의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초대 편집위원장에 위촉.

▲安玟鎬(무역77-81 前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산업경제실장)= 지난 3월 21일 지식경제부 제1차관에 임명.

▲鄭鍾寬(화학교육77-81 충남발 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장)=지난 3월 1일 한국인 최초로 임기 3년의 국제영향평가학회 아시아·아프리카·대양주 지역에 당선.

▲黃仁子(대학원78-82 영산대 겸임교수)=지난 3월 17일 자유선진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

▲都東煥(AMP 26기 민족문화영향협회장)=지난 3월 10일 임기 3년의 서울충무로국제문화제 조직위원회 초대 이사장에 선임.

▲張慶作(AMP 33기 前롯데그룹 호텔부문 총괄 사장·관악회 이사)=지난 3월 24일 현대아산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河炳鎬(ACAD 65기 현대백화점 사장)=지난 3월 23일 한국백화점협회 총회에서 제18대 회장에 선임.

▶▶ 행사

▲權壽赫(의학41-47 모교 의학과 명예교수·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총재·본회 고문)=지난 3월 23일 서울 여의도동 KBS 신관 라디오 공개홀에서 세계결핵의 날

기념 세미나 개최.
▲李吉女(의학51-57 가천길재단 회장·경원대 총장·본회 부회장)=지난 1989년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태어난 네쌍둥이와의 약속을 지켜 지난 2월 16일 간호사로 채용. 또 3월 16일 경원대 신입생 형제 수를 조화해 셋째 이상의 신입생에게 ‘嘉泉 다자녀 장학금’ 1억6천만원 수여.

▲朴永寅(농학56-62 한국자조금연구원 이사장)=지난 3월 10일 서울 외교센터에서 ‘자조금 도입백서’ 출판 기념회 개최.

▲李秉錫(회화58-62 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서울은평미술협회장)=지난 3월 15~18일 홍콩 중앙전람관 미술 전시관에서 전시회 개최.

▲元美娘(회화65-69 샌프란시스코 증견화가)=지난 3월 4~27일 서울 소격동 선 컨템포러리 갤러리에서 ‘불꽃-햇빛을 잡으며’를 주제로 개인전 개최.

▲鄭東俊(행정대원65-67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서초지회장)=지난 4월 5일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 무료한자대강좌 개최.

▲全奎秀(토목공학67-71 모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대한토목학회 회장)=지난 3월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3회 토

목의 날 행사 개최.
▲郭贊浩(신대원69-71 한국통일문화연수원 이사장)=최근 서울 금호동 성동보훈회관에서 ‘우리민족 또 하나의 비극, 재일 조종련 북송사업을 되새겨본다’라는 주제 등으로 강연.

▲裴仁俊(철학70-74 동아일보 주필·한국신문방송 편집인 협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4월 8~9일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신문방송 언어의 품격’을 주제로 ‘2010 편협 어문·교열부장 세미나’ 개최.

▲朴勝俊(중문74-78 인천대 초빙교수·본보 논설위원)=최근 지난 1백년간의 한·중 외교 비록을 정리한 ‘한국과 중국 100년’(기파랑刊) 출간.

▲鄭潤(자원공학76-80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지난 3월 18일 서울 예장동 문학의 집·서울에서 ‘과학과 예술의 융합, 왜 미디어 아트에 주목하는가’라는 주제로 제1회 융합카페 개최.

▲金鎮國(정치78-85 중앙일보 논설위원·관훈클럽 총무·본보 논설위원)=지난 3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과학기술부

安秉萬장관을 초청, 관훈토론회 개최.
▲姜東昊(국제경제82-86 서울경제신문 국제부 차장)=최근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제3차 G20 정상회담까지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되

돌아본 ‘글로벌 금융대공황’(21세기북스刊) 출간.
▲任美貞(기악84-88 한세대 교수·피아니스트)=지난 3월 28일 서울 세종체임버홀에서 슈만, 브람스 작품으로 ‘세상의 모든 음악’ 연주회 개최.

▲황순빈(기악95-99 서울클래식컬 플레이어즈 수석·바이올리니스트)=지난 3월 21일 서울 세종체임버홀에서 ‘조국애, 음악애’를 주제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朴洙眞(기악97-01 한세대 강사·피아니스트)=지난 4월 12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쇼팽, 드뷔시, 슈만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鄭義順(AMP 4기 극동포럼 이사장)=지난 3월 4일 캐슬린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 ‘한미관계’ 주제의 포럼 개최. 또 4월 9일 韓昇洙 前 국무총리를 초청,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주제의 포럼 개최.

■ 명복을 빕니다 ■

(괄호안은 향년 표시)

- ▲梁好民(정치45-49 前한림대 석좌교수)=3월 17일 별세(91세)
- ▲金允鉉(경제45-52 前삼광물산 사장)=3월 12일 별세(83세)
- ▲李應百(국어교육46-49 모교 명예교수)=3월 29일 별세(87세)
- ▲殷鍾弼(약학47-50 은강약국 대표)=3월 24일 별세(81세)
- ▲朴泰緒(행정48-53 前제일제당 사장)=3월 16일 별세(82세)
- ▲宣炳基(체육교육52-56 고려대 명예교수)=3월 11일 별세(79세)
- ▲韓懷(상학52-56 前경기도교육감)=3월 25일 별세(78세)
- ▲金仁壽(약학54-58 구내약국 대표)=3월 29일 별세(80세)
- ▲朴殷昌(국어교육55-59 前보성고 교사)=3월 23일 별세(80세)
- ▲朴信娃(간호63-67 경희대 명예교수)=3월 14일 별세(66세)
- ▲朴材佑(사회사업64-68 온누리수족목법학회 회장)=3월 25일 별세(68세)
- ▲安任洙(영어교육65-69 관동대 교수)=3월 8일 별세(64세)
- ▲朴重熙(경제66-70 대주전자재료 부회장)=3월 4일 별세(62세)
- ▲權泰憲(기계공학71-75 포스텍 교수)=3월 20일 별세(58세)
- ▲姜大根(신대원76졸 前유네스코 교육원장)=3월 18일 별세(61세)
- ▲辛豪根(교육75-79 불암고 교장)=3월 14일 별세(55세)
- ▲정승원(전기공학99-06)=3월 10일 별세(30세)
- ▲李東根(ACAD 32기 前국회의원)=3월 8일 별세(72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 于海書室散稿
－ 李炳銑 지음



부산대 李炳銑(국어교 육51-55) 명예교수의 散稿集. ‘于海’는 웅비어전가 제2장의 ‘必達于海’에서 딴 필자의 自號이고, ‘散稿’는 필자의 서실에 흩어져 있는 원고를 모아서 이 책을 엮었다는 뜻이다.

이 책에는 고대 국명, 지명의 고증을 통해 任那 문제 등 고대 한 일관계사를 고찰한 글이 많이 올려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의 관심사로서 쓰여진 것들, 즉 젊은 시절에 쓴 수필과 논설문, 그리고 한자 혼용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로 주고 받은 우리 정부 인사 및 일본 정계 인사들과의 서신, 또 학문과 친선을 위해 주고받은 일본 학자들과의 서신 등도 올려 있다. <아세아문화사刊·값35,000원>

■ 대한민국 정부형태
어떻게 할 것인가
－ 金哲洙 편저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학술원이 정부형태 개정 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세계 각국의 석학들과

한국의 학자·정치가 등을 초청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책은 이 대회에서 발표된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 논문집에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인 모교 법학부 金哲洙(법학 52-56 본보 논설위원) 명예교수의 정부형태의 일반론과 한국 정부형태와 개정 논의에 관한 논문이 게재돼 있다.

또 Cronin교수의 미국 대통령제, Starck교수의 독일 의원내각제, Higuchi교수의 일본 의원내각제, 비교정부론의 대가인 Ackerman교수의 새로운 권력분립제 논문을 전재했다.

더불어 고려대 桂禧悅명예교수가 소개한 한국 정부형태의 변천과 대안을 담았으며, 미국식 대통령제를 주장한 金一榮 前성균관대 교수, 프랑스식 의원정부제로 해야 한다는 모교 成樂寅교수,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개정해야 한다는 대전대 김도협 교수의 논문이 함

께 수록돼 있다. <예지각刊·값 24,000원>

■ 부부건축가가 함께 한 건축외길 50년
■ 건축, 세상만사
－ 元正洙·池 淳 공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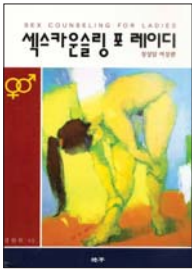
‘부부건축가가 함께 한 건축외길 50년’은 간삼건축 상임고문인 元正洙(건축 53-57)·池 淳(건축 54-58) 동문 부부가 건축계 후진에게 남겨줄 의도로 건축가 생활의 기록을 모은 책. 李世基 前서울



신문 논설위원, 安瑛培 前서울시립대 교수, 동료 건축가 金洹·金錫澈·姜錫元씨, 외국 건축가 램스던·야마시타 씨 등 사회인사와 건축계 인사들의 귀중한 원고를 소개했다.

‘건축, 세상만사’는 元正洙동문이 들려주는 건축세상이야기. 건축가의 권한과 의무인 설계와 공사 감리과정을 실제로 진행하면서 얻게되는 경험을 짧은 단문형식으로 담았다. <간삼건축刊·각 권 값 12,000원>

■ 섹스카운슬링 포 레이디
－ 金源會 지음



부산대 산부인과 金源會(의학 56-62) 명예교수가 여성의 성상담 및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성교육

자나 상담자들의 수준에 맞춰 성문제를 문답형식으로 쓴 책.

성병, 오르가슴, 조루증, 페팅, 피임 등 성학의 개론 중 많은 지식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설명을 붙이고 성상담을 통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오해와 고민을 풀고 성에 관한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金동문은 “어떤 이유에서건 성을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성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며, 인격 그 자체”라고 설명한다. <지평刊·값12,000원>

■ 국어 표준 규정과 편집 기호 콘텐츠
－ 全泳杓 편저

상록문화정보연구소(SMRCI)



全泳杓(언어 56-60) 대표가 한글 맞춤법과 더불어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외국 국명·수도 및 인명 표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편집 기호 및 교정 기호 등 우리의 어문 생활에 꼭 알아야 할 표준 규정을 간추려 엮었다.

이 책에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폴란드어, 체코어, 스웨덴어, 덴마크어, 타이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21개 언어의 외래어 표기에 관한 한글 대조표와 표기 세칙 등이 수록돼 있다.

부록에는 실제로 책을 쓰거나 만들 때 참고하도록 책의 명칭과 편집 일반 용어를 정리했다. <시간의물레刊·값25,000원>

■ 인간의 발달과 생존
－ 曹洙哲 지음



모교 의대 정신과학교실 曹洙哲(의학 67-73) 교수가 쓴 인간의 발달에 관한 책.

曹 교수는 “모든 발달은 힘과 통제력을 얻는 과정으로 일어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목적인 생존을 위해서 힘과 통제력이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힘과 통제력’이라는 용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용어이며 또한 생물학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영혼적 측면 등 인간의 여러 측면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 책은 인간의 발달과 생존과정을 통해 우리 내부의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밝히고 있다. <학지사刊·값 13,000원>

■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거울
－ 李昌鎬 지음



삼육대 교양교직학부 李昌鎬(국어 교육 71-75) 교수가 인체 각 부위에 독립된 의미를 부여한 시 60여 편을 한 권에 담았다.

1970년대 이후 국가발전의 몸부림 속에서 함께 고뇌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서정과 한 인간으로서

공연

■ 郭魯姬 피아노 독주회
－ 4월 18일 예술의 전당



명지대 겸임교수를 역임한 피아니스트 郭魯姬(기악81-85) 동문(사진)이 4월 18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이날 라모, 베토벤, 쇼팽, 브람스 등의 작품을 공연한다. <공연문의 : 부암아트 391-9631>

의 종교적 갈망과 인간탐구 등을 1·2부 ‘인체 탐구’, 3부 ‘성서 속 서정’, 4부 ‘자연과의 교감’으로 형상화했다.

李동문의 시집은 육체로서 몸의 역할과 의미를 재발견함으로써 정신과 육체의 행복한 조화를 이루어내며 바람직한 삶의 길, 가치 있는 삶의 길, 보람 있는 시의 길을 열어가고자 했다. <시학刊·값 8,000원>

■ 리더십 혁신 경청하라
－ 高永基 감수



코어코칭 연구소 선종욱 대표의 저서가 한양전문학교 高永基(체육교육 72-78) 학장의 감수로 출

간됐다. 경청은 탁월한 리더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분명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리더십을 세우려면 경청을 연습하고 실천해야 한다. 경청의 부족함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훈련한 과정에서 모은 자료를 책으로 꾸몄다.

이 책은 한국인들의 경청 기술과 방법이 깊이 있게 하고, 다양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태동출판사刊·값10,000원>

■ 일본, 조선총독부를 세우다
－ 許英燮 지음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지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許英燮(지리교육74

9631)

■ 嚴義卿 피아노 독주회
－ 5월 2일 예술의 전당



국민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嚴義卿(기악81-85) 동문(사진)이 5월 2일 오후 3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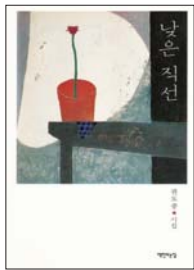
이날 쇼팽, 스트라우스, 크라이슬러, 라벨 등의 왈츠를 선사한다. <공연문의 : 부암아트 391-9631>



-78 본보 논설위원) 동문 이 조선총독부 건립에 얽힌 일화들을 다큐멘터리로 엮듯 기록해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려 했던 일제 식민정책의 본질을 파헤쳤다. 일제는 5백년 왕조의 중요한 상징인 경복궁을 헐어냄으로써 조선 백성의 뇌리에서 왕조의 잔영을 지워내려고 했다.

우리 민족에게 쓰라린 기억일 수밖에 없는 한일 강제합병 1백년을 맞아, 이 책을 통해 조선총독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양국의 과거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채륜刊·값19,000원>

■ 낮은 직선
－ 權度重 지음



1974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한 權度重(ACAD 49기 엠 대표) 동문이 80여 편의 작품으로 두 번째

시집을 펴냈다. 2008년 첫 시집(네 이름으로 불러가는 강)에서 계속 이어지는 주제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특히 표제작 ‘낮은 직선’을 비롯해 ‘간절함’, ‘한잔 술’, ‘보고픈 마음’ 등 그리움과 애뜻함이 절묘하게 담긴 작품들과 순수함이 돋보이는 작품, 사랑과 우리네 일상이 담긴 기품 따뜻한 작품들이 지친 현대인의 감성에 위로로 전한다. <책만드는집刊·값8,000원>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은 계속됩니다

〈참여 기회 놓치지 말고 서두릅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 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 20억원

△김종섭(사회사업66-70)

◆ 15억원

△故박관호(화학교육51줄)

·신명규(생물교육48-54)

◆ 10억원

△강진호(의학46-52)

△곽영필(토목공학56-60)

△구평희(정치학47-51)

△김상하(정치학45-49)

△김은중(경제학59-63)

△김정식(전자공학48-56)

△김형주(토목공학46-50)

△박호진(경영학62-66)

·김영희(작곡62-66)

△신창재(의학72-78)

△오동영(조선항공54입)

·김찬숙(치의학56-60)

△윤세영(행정학56-61)

△이준용(경제학56-60)

△정계영(상학61-66)

△정팔도(AIP 1기)

·이지행

△홍성대(수학57-63)

◆ 5억원

△김주진(법학54입)

△조기호(화학교육54-58)

·이영자(생물교육56-60)

◆ 3억원

△김병순(AMP 4기)

·이지호(의학77-83)

△이길여(의학51-57)

△정석규(화학공학48-52)

△허남각(경제학56-60)

◆ 2억원

△남정현(건축학57-61)

△손정식(법학57-61)

△이중기(경영학69-73)

△이준행(섬유공학48-54)

△장용택(약학55-61)

△장학순(토목공학46-50)

△조필재(조선항공46-50)

◆ 1억5천만원

△故김도창(법학43-47)

·목춘5부자

◆ 1억3천5백만원

△장병덕(화학교육53-57)

◆ 1억2천만원

△엄병윤(외교학60-64)

◆ 1억1천1백20만원

△미술대학동창회

◆ 1억1천만원

△성백전(토목공학52-56)

·김안순(화학공학54-58)

△수학과동창회

◆ 1억30만원

△박성훈(기계공학58-63)

◆ 1억원

△강순걸(법학54-58)

△곽동현(법학61-65)

△김두희(물리학52입)

△김문현(상학58-64)

△故김영경(기계공52-56)

△김정철(건축학52-56)

·김정식(건축학54-58)

△김창식(전기공학53-57)

△나공목(상학56-61)

△남상용(건축학52-57)

△노인환(경제학54-58)

·故한명화(가정교육60줄)

△류중희(기계공학53-57)

△명태현(기계공학46-50)

△박명운(보대원74-76)

·이행자(보대원69-71)

△박실상(AIC 9기)

△박희백(의학51-57)

△변주선(영어교육60-64)

△서정화(법학51-55)

△故손치무(대학원70줄)

△안성철(행정학58-63)

·손윤숙

△故양은숙(간호학51-54)

△故오응현(섬유공67-71)

·추경옥

△오홍조(치의학56-61)

△우인성(기계공학58-62)

△유상부(토목공학60-64)

△이금기(약학55-59)

△이상범(법학53-57)

△이수범(행정학56-60)

△이예식(약학46-49)

△이정상(상학59-65)

△이지호(의학77-83)

△이해원(행정학51-55)

△장세일(전기공학59-63)

△장중환(의학69-76)

△전동용(수의학52-56)

△정윤환(임학56-62)

△정충시(화학공학72-76)

△조경일(약학64-68)

△조병우(섬유공학59-64)

△지원철(축산학73-77)

△최두형(행정학51-55)

△최상홍(기계공학54-58)

△최희장(섬유공학58-64)

△홍상옥(원예학83-87)

△보건대학원동창회

◆ 6천만원

△김윤택(경대원68-70)

△화학과동창회

◆ 5천5백만원

△농대 그린장학회

◆ 5천2백만원

△이현조(철학52-57)

◆ 5천50만원

△하상완(치의학64-70)

◆ 5천30만원

△이중현(경제학59-65)

·신갑순

◆ 5천10만원

△박남식(SCS 2기)

◆ 5천만원

△강인구(수의학59-64)

△공대식(기계공학56-60)

△김정희(약학57-61)

△김중기(생물교육51-55)

△김중서(경제학58-63)

△김중현(경제학55-59)

△류재명(AMP 34기)

△마국철(공업교육68-72)

△박주탁(무역학69-74)

△손일근(법학51-64)

△송경희(식품영양74-78)

·노만수(의학72-78)

△안 훈(수의학53-57)

△오인석(행정학58-62)

△유중해(법학50-54)

△이도경(농학56-63)

·이창진(기계공학84-89)

△이순석(약학61-65)

△이승준(섬유공학56-60)

·이청원(자원공학67줄)

△이운주(의학81-87)

·오지은(인류학83-87)

△이원규(농생물학58-63)

△이재원(상학55-59)

△이중대(천문기상학69줄)

△이형도(화학공학61-67)

·박효순(영어교육66-70)

△정대영(경제학51-55)

△정재봉(사회사업60-64)

△지창수(상학55-59)

△하권익(의학57-63)

△하부열(경영학74-78)

△허병하(상학58-62)

△홍예표(치의학65-71)

△황해근(토목공학54-60)

·故이금옥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농대 일산회

△한우리SJM

◆ 3천60만원

△원정수(건축학53-57)

·지 순(건축학54-58)

◆ 3천만원

△강신혁(문리66-73)

△고원호(기계공학48줄)

△박홍일(영어교육60-64)

△송명호(자원공학59-65)

△심형윤(토목공학52-56)

△유석홍(무역학61-65)



·박영희(기악70줄)
△이경택(섬유공학57-61)
△이광식(약학66-70)
◆2천만원
△강학순(기계공학64-69)
△김원일(건축학61-65)
·최미혜(성악66-70)
△김재백(약학52-56)
△서병륜(농공학69-73)
△윤세극(경제학45-51)
△조갑주(경제학58-63)
·정정영(불어불문62-66)
△최정길(금속공학52-56)
◆1천5백만원
△김철순(조경학76-83)
△한규택(원자핵공73-77)
△치불희
◆1천2백만원
△강웅선(치의학78-84)
△김현산(법학54-58)
△심영보(의학55-61)
△안동일(법학59-63)
△오상호(전기공학48-55)
△이내원(화학교육58-62)
△이재철(법학70-77)
◆1천1백50만원
△천남중(자원공학65-69)
◆1천1백30만원
△신면우(의학50줄)
◆1천1백20만원
△윤홍중(약학55-59)
·故이상임
◆1천1백10만원
△이홍중(역사교육54-58)
◆1천1백만원
△김상복(종교학57-63)
△김상수(자원공학73-77)
·김태훈(건축학02-07)
△정해남(법학72-76)
◆1천80만원
△서병태(의학54-60)
△조내규(약학58-62)
◆1천70만원
△김정범(치의학60-66)
◆1천60만원
△박준옥(약학55-59)
◆1천30만원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일반회원 10만원 · 이사 30만원 이상

△박만호(행정학57-62)
△심이택(화학공학57-63)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형하(법학74-78)
△지헌택(치의학43-47)
△허성길(경제학60-64)
◆1천만원
△강신주(사회교육51-55)
△강용현(법학71-78)
△강행언(토목공학61-65)
△고광우(행정학53-58)
△공구영(물리교육54-58)
△권동은(FIP 4기)
△권혁웅(불어불문59-63)
△금진호(법학50-58)
△김 철(기계공학64-68)
△김기춘(법학58-62)
△김두만(상학59-63)
△김미령(약학74줄)
△김백준(수학62-66)
△김병린(토목공학55-59)
△김상호(법학72-76)
△김신양(중어중문84-88)
△김연호(화학공학71-75)
△김영갑(법학74-78)
△김영석(경제학60-66)
△김영재(공업화학77-81)
△김원배(동물학55-60)
△김윤중(약학64-71)
△김은식(국사학73-80)
·윤영옥(생물교육72-76)
△김일섭(경영학64-69)
△김재범(산업공학74-78)
△김재호(생물교육53-57)
△김주환(토목공학57-61)
△김진규(기계공학61-66)
△김찬욱(기계공학55-59)
△김철수(법학52-56)
△김평우(법학63-67)

△노병수(공법학83-87)
△류태환(상학48-54)
△문규철(응용화학69-73)
△문대원(경영학71-75)
△문명국(기계공학73-75)
△문성훈(식품공학86-92)
△박덕철(기계공학57-61)
△박명학(영어교육61-65)
△박영준(상학60-66)
△박중국(농화학57-63)
△박준우(의학75-81)
△박진희(무역학76-80)
△박창우(경제학80-84)
△배명인(법학52-56)
△백사익(채광학40-42)
△변상현(의학51-57)
△서계숙(기악56-60)
△석학진(상학58-64)
△설동섭(축산학53-57)
△신방호(경제학67-71)
△신윤식(사학55-59)
△신혜순(가정교육47-51)
△안경상(행정학57줄)
·김정애(가정교육54-58)
△양배덕(전기공학57-61)
△양성철(정치학58-64)
△엄기영(사회학70-74)
△오병제(AMP 21기)
△오용섭(임학60-66)
△유흥수(법학58-65)
△유희춘(상학49-55)
△윤영석(경제학58-64)
△윤희진(축산학63-67)
△이강수(상학51-55)
△이경호(행정학61-65)
△이계우(행정학58-63)
△이동철(토목공학78-82)
△이병재(경대원69줄)
△이병형(화학67-71)

△이상현(정치학64-68)
△이석운(영어영문50줄)
△이세중(행정학53-57)
△이승은(상학53-57)
△이인기(지질과학62-66)
△이재후(법학58-62)
△이전구(임학60-64)
△이중웅(기계공학65-69)
△이진규(치의학78-84)
△이창기(약학55-59)
△이창원(법학55-60)
△장무환(경제학45-51)
△장세권(농공학70-76)
△장익용(기계공학54-58)
△장자준(의학70-77)
△장휴동(농경제학59-63)
△조길웅(HPM 14기)
△조정훈(자원공학75-81)
△최규팔(계약학70-74)
△최남해(상학52-56)
△최선집(사회교육75-79)
△최승철(기계공학66-70)
△최준기(조선항공57-61)
△추재옥(의학63줄)
△표상기(원자력공61-65)
△하영기(정치학44-48)
△한창섭(정치학57-62)
△故함인영(기계공학48줄)
△함정호(행정학53-57)
△허 선(정치학64-68)
△홍순자(독어교육61-65)
△황경로(AMP 11기)
△황남주(물리학87-92)
△전북지부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
◆7백만원
△정경모(행대원65-67)
◆6백만원
△오창석(전기공학46-50)

△이재식(교육학75-79)
◆5백만원
△김영수(법학60-64)
·원종순(국어국문64-68)
△박수복(농생물학56-61)
△서립규(토목공학57-61)
△송진해(공업교육63-72)
△신박일(약학60-64)
△윤성근(공업교육74-78)
△윤순녕(간호학69-73)
△윤익석(축산학49-53)
△이기수(대학원70-72)
△이윤경(간호학65-69)
△이현구(AMP 52기)
△정주석(법학61-65)
△조상근(행정학69-73)
△조원환(AMPP 6기)
△법대37회 동교회
△오사카지부동창회
△AMPFRI동창회
△FIP동창회(김명도)
◆4백30만원
△강충원(전기공학59-65)
◆3백90만원
△이정식(지구과학72-76)
◆3백50만원
△임장주(SPARC 11기)
◆3백30만원
△김석만(화학57줄)
△이종복(응용미술62-66)
◆3백10만원
△인효석(농공학80-87)
△최병호(화학교육57-61)
△한규범(AMP 42기)
◆3백만원
△강영현(농경제학69-76)
△권숙일(물리학54-58)
△권혁창(지구과학69-76)
△김인규(정치학69-73)

△김재율(경성법전39줄)
△김형기(불어교육72-76)
△박금식(화학54-58)
△안재동(상학60-67)
△이동수(건축학61-66)
△이성기(행대원63-65)
△임채주(경제학55-59)
△정영채(수리학56-60)
△하재규(농학53-57)
△황선용(사회교육57-61)
〈이상 2005년 10월 1일부터 2010년 3월 24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2백만원
△이원환(토목공학49-53)
◆1백30만원
△이규대(AIP 36기)
◆1백만원
△주영숙(치의학55-59)
△한규록(의학80-86)
◆60만원
△이태영(농경제학54-58)
◆50만원
△염조일(ASP 15기)
△오지연(독어교육87-91)
◆40만원
△민경식(전기공학50-55)
△임갑혁(공업교육69-77)
◆30만원
△안종윤(법학51-55)
△안준석(국제경제84-89)
△이종영(기계공학53-57)
△정용두(철학53-57)
△한도연(사회교육49-53)
◆10만원
△권오준(컴퓨터공02-07)
△박선호(화학공학74-78)
△신용하(사회학57-61)
△안선원(FIP 1기)
△이세장(경제학55-59)
△전홍렬(사회교육67-71)
△황종복(역사교육66-70)
〈이상 2010년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0년 2월 납부자 / 연회비 : 일반(10. 1. 26~2. 1)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金明子= 50만원

평생회비

(이사) △김현숙 음대74 △박승건 공대76 △원종례 인문73 △이재락 공대72

(일반) △강동화 ACAD68 △강민정 行院06 △강창식 ASP6 △강희철 大院76 △고미나 치대03 △김각근 치대71 △김광식 공대95 △김기주 상대53 △김덕중 생활01 △김상규 경영86 △김수진 농대92 △김애자 간호68 △김이곤 사회86 △김정자 약대62 △김주완 의대46 △김진국 의대88 △김진오 의대85 △김태호 농대80 △김학용 법대56 △김현령 사회05 △김현욱 인문83 △나일남 사대73 △문대혁 의대76 △민기복 공대89 △박선정 생활06 △박현섭 AMP66 △박형동 인문06 △백진욱 사대47 △서정화 약대04 △서희연 공대00 △손병용 자연68 △안근일 ACAD68 △안숙희 간호84 △안치석 의대79 △오석승 GLP19 △유종필 인문78 △윤영인 공대80 △이 다 자연87 △이경철 농대61 △이문기 자연05 △이병래 농대82 △이사의 농대03 △이성환 법대74 △이윤범 ACPM5 △이인범 농대03 △이정식 공대66 △이준순 사대52 △이현악 AIP41 △강재현 법대80 △강형일 사회99 △고금순 ASP9 △김 신 경영05 △김경자 간호60 △김규영 경성42 △김달석 AIC25 △김병훈 사회01 △김선호 법대01 △김수현 공대01 △김용희 의대88 △김재웅 AIP41 △김정자 AMP56 △김지영 사회03 △김진국 HPM16 △김춘우 GLP18 △김관진 AMP53 △김현덕 치대76 △김현성 자연07 △김형석 수의97 △노희천 공대94 △문용우 공대86 △민동주 사대89 △박영규 AMP66 △박현태 공대96 △백승주 사회93 △서동희 의대88 △서지영 공대00 △성환우 수의82 △송문호 공대84 △안세준 법대99 △안철수 의대80 △안태윤 공대92 △오재성 법대82 △유지선 자연05 △윤용준 공대63 △이건복 공대72 △이문규 법대03 △이방수 AMP37 △이병헌 문리54 △이상산 공대80 △이용욱 大院78 △이은호 사회82 △이재순 법대81 △이정윤 법대61 △이전만 공대91 △이학운 AMPF21

△임강수 공대92 △임채영 공대81 △임태수 AIP37 △장무익 문리64 △장신규 AMP64 △장태평 사회70 △정차수 공대73 △정홍일 경영05 △조남중 AMP66 △조승현 AMP66 △조용진 농대80 △조은자 생활61 △진미정 인문03 △채창원 AMP65 △최고은 생활03 △최미영 미대70 △태범식 법대48 △허성이 간호83 △황규국 AIP40 △황의영 AMP59 △임학언 법대66 △장수는 사회92 △장유정 공대00 △정상문 미대84 △정대범 사대58 △조 돈 치대61 △조무제 공대87 △조영승 법대64 △조원형 인문98 △조진태 농대54 △진부자 미대62 △최 영 新院72 △최동주 AFP4 △최성규 농대58 △한윤희 AMP63 △허중식 ALP10 △황성규 법대81

일 반

◆인문대 △강석전84 △고종훈88 △김민지01 △김상명81 △김의진97 △김태훈85 △도재문72 △박동춘73 △박종덕74 △박혜윤94 △변성수84 △서형배74 △신원식73 △신태식83 △안대영91 △오동렬80 △원종명99 △이병직00 △이왕돈75 △이운용00 △이장욱87 △정병윤78 △조형동84 △최상열00 △한서영04 △허남정77 △홍재범86 △황보성85 △황성태90 ◆사회대 △김광일74 △김민관97 △김봉준00 △김영은03 △김정기85 △김제림02 △김환준84 △김흥수85 △문도선83 △문병성74 △문한성91 △문흥대82 △박원재83 △박재진89 △박정호83 △박종철90 △박주태85 △박지환00 △박흥수02 △서경선82 △송경모82 △신상조86 △안평수87 △이 기73 △이성호72 △이수전91 △이수형94 △이윤석00 △이주환93 △전재범82 △정 도86 △정용진98 △정재호73 △조동기83 △주홍민91 △차명진79 △홍민영96 △황병철73 △황영수77 ◆자연대 △강태인03 △고민섭03 △김기표00 △김병수74 △김성환00 △김준식91 △김태원93 △김태윤05 △나병록73 △노혜림80 △박성호02 △박용철72 △박용호00 △서재영83 △양승락02 △엄상영77 △이병일94 △이상도83 △이용원90 △이홍재79 △장종만72 △정 황72 △정동근84 △정민경00 △정지범04 △조동원73 △조완제84 △주영길88 ◆간호대 △김매자60 △김혜경88 △박문희59 △신혜경68 △윤미여76 △이선주81 △최영희65 △최완희84 ◆경영대 △고희라99 △김상범85

△김선호81 △김완중99 △김진택95 △류상기78 △박봉휘02 △박주양79 △송호찬78 △신윤철70 △안남기87 △안호민94 △엄승섭87 △이명길89 △이재욱88 △이재혁98 △이준구91 △조표훈95 △조현택83 △최상원01 ◆공대 △강성수57 △강영식64 △강영식68 △강용규52 △강창수48 △강준식55 △강항식81 △강홍열48 △고향규68 △곽성용77 △권도용93 △권준은00 △권혁준97 △김 석93 △김경원83 △김광일81 △김남영69 △김대성87 △김대웅61 △김동인60 △김동진83 △김명준03 △김법근02 △김상수66 △김상용54 △김성기80 △김성민99 △김성희00 △김세준83 △김세중05 △김수웅60 △김순민66 △김용백61 △김윤규59 △김의덕83 △김의석84 △김재형51 △김정근60 △김정부64 △김정원63 △김정인94 △김정훈03 △김제욱73 △김종상56 △김종윤93 △김종재55 △김종한61 △김주열91 △김주영55 △김진오79 △김태영01 △김태한91 △김태형94 △김현승93 △김현종71 △김현태99 △김형기66 △김홍남03 △김홍수75 △김홍훈53 △나윤찬95 △남강복80 △남광문61 △노동근95 △노충래62 △류무열77 △류중희53 △문상무85 △문종규58 △문지원97 △민병진82 △민태기90 △박광표47 △박권식87 △박대홍89 △박선민01 △박순규92 △박승엽46 △박양수83 △박영순54 △박원호85 △박인섭70 △박재현83 △박정수82 △박종규88 △박종로01 △박종태61 △박준성03 △박지빈93 △박지훈01 △박한솔02 △박형호54 △박희규54 △방종식02 △백학기52 △변정수89 △서성수86 △서영길59 △서장렬83 △성운준05 △손계욱70 △손택만82 △송병국97 △송인상00 △송인호91 △송재혁87 △송준명90 △신산호00 △신요안83 △신용기85 △신현국68 △신현목45 △심창생60 △안병휘59 △안준규01 △양승철99 △양희진02 △여태승82 △오경식75 △오성목04 △오승용05 △오영호72 △우종범85 △원제혁58 △유무웅58 △유병욱81 △유석연87 △유승현99 △유인봉55 △유주형05 △윤용균81 △윤태호03 △윤필중83 △이동욱82 △이범철65 △이봉희73 △이상규98 △이상현01 △이석규57 △이성렬45 △이성배74 △이승욱56 △이승준02 △이영환86 △이용희83 △이우성90 △이윤용56 △이윤종80 △이정민52 △이정주65 △이주희03 △이지수77 △이지환04 △이지훈04 △이찬우05 △이태현95 △이해인95 △이현경68 △이희일52 △임 준92 △임갑혁69 △임달연48 △임병문58 △임상진90

△임종현04 △장근홍96 △장상배82 △장응재64 △전대극96 △전연욱57 △정근영85 △정대환65 △정민하91 △정용원76 △정유석89 △정의석85 △정인식74 △정자철77 △정재관57 △정지원98 △정진경48 △정진수67 △정대식92 △정대영73 △정학영78 △정해길65 △정희목89 △조 만56 △조경구83 △조남일70 △조민욱02 △조종현46 △조형태00 △조경열76 △최기혁84 △최도영83 △최세진92 △최왕돈80 △최우석95 △최종균79 △최현수85 △최홍섭78 △최휘철62 △하태권06 △한보식46 △한선화80 △허 홍58 △홍성관61 △홍순일53 △홍용근52 △홍재훈81 △황용희85 △황재웅96 ◆농대 △강예목53 △강원봉77 △공영선90 △권성규79 △김광석71 △김기철90 △김길만88 △김남현74 △김명록46 △김무결49 △김봉길89 △김삼남61 △김삼식53 △김성모85 △김성우98 △김소연92 △김아연90 △김원문67 △김원보73 △김원수56 △김재동78 △김재영94 △김정교49 △김종호84 △김진근56 △김진수00 △김진호89 △김찬조49 △김한석66 △김호탁58 △노영성74 △노재흥56 △민두식54 △박상용83 △박정수61 △박종현77 △박준식72 △박준호83 △박형훈55 △변상지74 △서승덕55 △성우경50 △손진규82 △송기환86 △송삼석53 △심재철57 △양철호89 △염병현84 △오근배56 △오무영55 △오원식83 △오진경07 △오학영56 △우무일64 △원인희73 △유석형58 △유종철57 △윤상렬57 △윤상철80 △이건우52 △이광선57 △이광웅61 △이기순69 △이기한55 △이도전55 △이범재65 △이병하55 △이상구79 △이상귀88 △이세표55 △이수봉57 △이재구58 △이종구53 △이종렬50 △이중택76 △이진희81 △이택원52 △이홍석52 △임명미59 △임무상59 △임영준67 △임형백89 △장낙연55 △장대석58 △장인권81 △전성익55 △정병기52 △정수봉60 △정인무53 △정정택70 △조성진48 △조한보48 △채 일89 △전정웅62 △최봉영75 △최성환62 △최은순78 △최중진74 △최현숙65 △하 원82 △하병찬87 △한상복54 △한상봉57 △한중희57 △한찬택52 △한준연52 △허 홍49 △허문회90 △홍성호58 △홍순일63 △홍의표58 △홍준표92 △홍택영57 ◆문리대 △곽광수59 △곽호영66 △권동숙52 △권병수66 △권의식67 △권태승55 △김기원65 △김동필64 △김명수54 △김명정64 △김무창61 △김생기59 △김옥민51 △김용권50 △김용남63 △김용태56 △김우철56

△김일송63 △김정숙58 △김정택60 △김치곤53 △김형효58 △나미례65 △남기흥67 △남이웅68 △명동원71 △박옥줄48 △박원우50 △박재우64 △박종민54 △박진하48 △백영근55 △서병철59 △서일환55 △서정욱60 △손후엽61 △송기원47 △신섭중52 △신효순61 △안상경54 △안승원68 △염태호59 △오임철52 △우성식71 △우창웅52 △유구영59 △유병길68 △유정열52 △유춘재61 △유희열65 △윤용진59 △이광웅59 △이동화65 △이문구59 △이병근59 △이상근59 △이우연45 △이재룡50 △이정란59 △이정주55 △이진희54 △이혜봉62 △이효연71 △임광순68 △임병주50 △임성기62 △장화순50 △전대식53 △전만수55 △정 탄65 △정기인60 △정서웅62 △조계찬47 △조창연61 △주석순48 △진무현52 △차기벽46 △최봉석69 △최상규63 △최원우65 △하이영48 △한창호65 △홍성욱70 △황의박63 ◆미대 △강유진96 △김남용90 △김영자63 △김용진79 △김충경54 △서원영85 △성기완58 △성윤수02 △손복희67 △신재은04 △이상은86 △이우범67 △이주원87 △이준환90 △임상진54 △임순자69 △전경미02 △정규현02 △조새미92 △차시은93 △한상희04 ◆법대 △강기철48 △강병연57 △강형주77 △강형춘54 △강희철90 △권선용73 △김광석56 △김기형50 △김남진51 △김병철83 △김병호82 △김순구58 △김영균52 △김예환45 △김원주53 △김윤철48 △김정렬54 △김종훈83 △김주일58 △김중성81 △김진기67 △김진홍57 △김현민61 △김홍재53 △노명준57 △노영규51 △노창동82 △노훈근62 △류준형51 △문정두60 △박관근85 △박성진84 △박요찬81 △박용우88 △박인환51 △박진우92 △박해봉83 △박희수70 △방인걸85 △배기열82 △배병우53 △배상오55 △변재승60 △서승완58 △서주홍73 △송경숙91 △신원도87 △안경수99 △안남규50 △안병익88 △염웅철74 △오석환51 △오영상82 △오종권65 △오치룡65 △오효민95 △유영상81 △유재신48 △유지근89 △유철환79 △윤금중48 △윤상목52 △윤성근78 △이광철65 △이교선55 △이대우67 △이동렬68 △이상근74 △이상훈78 △이순기03 △이승환55 △이영의59 △이원기81 △이웅웅65 △이종신63 △이창범53 △이흥무79 △임순목53 △임영호77 △임일수95 △장 호67 △장준봉55 △전오영82 △정용달81 △정용재57 △정우영79 △정지태58 △정진호83 △조기현51

△조성일61 △조왕제55 △조용석53
△조주운56 △주경진55 △진상윤81
△최완주77 △추영일61 △하윤홍80
△한경수72 △한기일58 △한무근82
△함민식59 △홍기인55 △홍성인58
△홍일표63 △홍진영00
◆사대 △강신희53 △강한필59
△고병철61 △곽동순67 △곽지훈77
△김광운73 △김봉민53 △김선종97
△김성진53 △김용승96 △김육성89
△김원석56 △김정순65 △김지수88
△김진원56 △김진후74 △김장경61
△김창철60 △김혜선02 △박광재85
△박대식71 △박영목56 △박영숙41
△박영식76 △박인식48 △박준순52
△박종근60 △박준진57 △박대화52
△방재곤62 △배구섭59 △백영묘98
△변모은90 △변재용59 △서성혁82
△서윤수48 △석용징77 △성기종54
△신동순53 △신철지60 △신희균58
△심지홍72 △안규철58 △안재석86
△안종환55 △염도균59 △오보호93
△오승현97 △유기동65 △유기웅59
△유명선67 △유병섭82 △유복희72
△유성렬64 △유환옥78 △윤 진84
△윤기정68 △윤미희03 △윤석오64
△윤영준84 △윤희옥60 △윤희태99
△이강범57 △이광범92 △이광웅61
△이기종56 △이대규57 △이매기87
△이상욱51 △이석주56 △이양선56
△이영윤58 △이용득71 △이용우55
△이우진53 △이윤우64 △이인기81
△이재민79 △이정태55 △이정태70
△이종덕60 △이종희40 △이종석02
△이채규66 △이혜영75 △이호상57
△이흥종54 △임찬희78 △임흥선53
△정구옥49 △정동춘80 △정문환56
△정상호67 △정영수84 △정영호52
△정우상53 △정은혜02 △정재도82
△정재훈02 △정하경80 △정호경52
△조경오75 △조은진85 △조의래56
△주윤수66 △진쾌현56 △채희목72
△최만희57 △최희주52 △하기훈01
△한원영49 △현영희57 △현재복56
△홍갑표59 △홍석영85 △황기탁49
◆상대 △강태석51 △구익일61
△권태웅58 △김남택62 △김병기54

△김상희69 △김재수58 △김제진55
△김종현55 △노병태61 △박경석53
△박봉흠68 △박창길66 △백치곤49
△서재진60 △서정옥59 △성백규52
△소재수57 △손명환61 △송주식46
△신양우70 △신중현56 △신현직45
△신후성55 △심소일49 △안홍지61
△양세규62 △염재현65 △유병인58
△이봉길58 △이성열69 △이영주53
△이창준53 △이필원60 △이희준49
△임정일62 △장기선66 △정기준60
△정상철60 △정희경60 △제정오57
△조관호56 △조동후51 △조용해69
△진영보48 △진영수63 △차병권44
△최병로49 △최석철56 △한희영49
△허 길52 △현임종56 △홍동진48
△홍순태56
◆생활대 △김경숙82 △김동우99
△김명경83 △김성희69 △김정주56
△김정희76 △문영보72 △박미연04
△백선자64 △손희준77 △안은정03
△이경숙60 △이지혜01 △이화숙57
△임정빈61 △전주리03 △정정기90
△최규순61 △한희수57 △황덕순72
◆수의대 △권순기57 △권순현76
△길혜명05 △김남호90 △김세훈97
△노병의61 △박내정63 △박만규50
△박만택52 △박현기66 △배동희86
△신래섭56 △양재만91 △오순민81
△유보희82 △윤영원63 △이 완82
△이상인82 △정영시54 △정진화52
△조인환00 △조종기91 △황선영01
◆약대 △권창호47 △권현덕61
△김기현52 △김만수95 △김삼영58
△김성모72 △김영길61 △김용웅86
△김하진72 △김현옥57 △김홍대59
△김홍집57 △박문기47 △변정수96
△송문정90 △양순애95 △엄문경85
△오병무62 △윤광수69 △윤여상57
△이상모55 △이석구62 △이수련05
△이일영56 △이재현45 △이재호72
△이종화55 △전도식67 △정상철52
△정숙기54 △정은희82 △정인조51
△조국희79 △조승희87 △조우상56
△조지웅53 △최현식64 △추영구45
△허서진02
◆음대 △김경옥74 △김영숙55

△김의창62 △김형규60 △박정자60
△박희명88 △송인정95 △안형일53
△엄미연96 △오주희04 △유화자59
△윤해중51 △이석준90 △이윤정04
△정민택86 △정선희00 △정이와03
△정혜연02 △최현경89
◆의대 △강승백82 △김길남75
△김길중06 △김종박59 △김종희50
△김희정07 △남궁견67 △박재홍80
△백만기43 △성낙응44 △성송기90
△심심은91 △안상부95 △오경균63
△오경백70 △오준호45 △원세재46
△유형록57 △이덕수55 △이방제57
△이상립46 △이상윤96 △이성희86
△이영돈73 △이정균56 △이중환51
△이춘식61 △이태연92 △임승재81
△장선택46 △정구현44 △정연철85
△정요한51 △정항보81 △정해관76
△정해철76 △정형배78 △조승현45
△주진순43 △최 현74 △최병휘73
△최수용07 △최용석82 △최희목51
△한인교66 △홍기정81
◆치대 △강우곤64 △강정욱83
△구연우54 △김기탈74 △김능세70
△김명국54 △김성범04 △김정기57
△김종태70 △김지현05 △김택근58
△김현태76 △박경정69 △박상규00
△박성원66 △박재간79 △백위현66
△변춘석81 △서명우83 △석광덕67
△성철제63 △손영경86 △안희용83
△염경철61 △오인식56 △용호택67
△윤동호80 △윤철민82 △이상선81
△이석근90 △이승종69 △이완수53
△이인창60 △이준기55 △임장섭54
△장기산57 △장명우83 △전혜림85
△정관서79 △정철표74 △조한준53
△차만희57 △최규원77 △최기채58
△황정일64
◆대학원 △고진석99 △곽영세86
△김기혁85 △김순희66 △김완구95
△김인배68 △류병관89 △류성호83
△박영수94 △박원명64 △서상혁79
△송현호82 △오문성84 △이경희90
△이명수88 △이효수84 △장석봉81
△장인청81
◆경대원 △박정남69 △박정수93
△박준석66 △최갑석72 △최원영93

◆교대원 △변정숙64
◆국대원 △박지훈05
◆보대원 △김영웅75 △김운서72
△김종만62 △김좌상60 △박남영59
△박상욱04 △서은하96 △송경섭69
△오병근88 △이민희74 △이한구69
△임인수84 △정건작87 △조귀래04
△최영아74 △황금복76
◆사대원 △김준열63
◆형대원 △김석균92 △남호현82
△박정훈59 △설균태88 △성낙승71
△이기선84
◆현대원 △강은순74 △김경대83
△김기전84 △김정아94 △서동조87
△안승홍94 △윤종식89 △이필수77
△최 준94 △최준호89
◆AMP △가갑순18 △고용석39
△권혁중5 △김기탁18 △김배호52
△김성복23 △김성식44 △김세겸43
△김영광65 △김준화18 △김중현49
△김진찬43 △나익수38 △도동환26
△민명술42 △민상기25 △박달용4
△박영춘66 △백문현25 △백정기4
△서영하34 △석 강61 △신중규4
△심갑보3 △안치현31 △오연수4
△오희택1 △우재영7 △원동혁16
△윤동균46 △윤종호48 △이강남44
△이동훈35 △이순구63 △이시용31
△이원구50 △이한규23 △장기홍8
△전동근11 △정 열14 △정공식63
△정용근45 △정희원60 △조봉구19
△전광찬28 △최영석11 △최영철20
△최오길29 △최종명14 △한종희28
△홍동표38 △황종갑56
◆AIP △고재하14 △권영익19
△김문규41 △김수기14 △김연우41
△남기정35 △문갑석2 △북진성35
△유각목5 △유춘중14 △윤재영36
△이건구24 △이창섭29 △이충근27
△정병화34 △조일래41 △차정웅18
◆ACAD △고세일32 △곽철중4
△김경수4 △김덕영18 △김동규67
△김승영43 △김연수16 △김원근65
△류근환13 △배상철67 △성시철55
△심영철59 △안승우38 △오필기2
△이강연27 △이병국68 △이복태67
△이양호18 △이영기27 △전영배5

△정석홍20 △조남조15 △조목식16
△주찬용67 △채증석13 △최병인5
△최봉인31 △최종구62 △최철규68
△황상모66 △황의철5
◆ABP △김원현6 △임경상9
△장현석20 △황승환30
◆SGS △김명수2 △이창복13
△정광화6 △조종태2 △황중현18
◆APC △박광신8 △서평근5
△신광현7 △이우용3 △하정호8
◆HPM △공화춘16 △김재영10
△배영봉14 △송병식9 △이석태23
△이영완1 △이주국2 △정호용8
△최봉영22 △한훈섭10 △현대우1
◆AMPP △남석희5 △이상철5
◆AIC △김석영25 △윤영기2
△이현태21 △한기식27 △허현욱13
◆AFB △김지미7 △민선기7
△박태성6
◆AMPFRI △김상철4 △김재원17
△김진수7 △문영철18 △박진태2
△백두철9 △유영기23 △이종무11
△천병기19
◆ACPMP △구본출5 △오윤택5
△하대청5
◆FIP △김종준2
◆GLP △강대구9 △고희권19
△권갑현18 △권덕수15 △김옥정10
△김원철15 △김일연11 △박정찬19
△백영준19 △서승욱19 △심상운14
△이정우13 △정해연17 △차화철12
△최진철18
◆ALP △권동환2 △김기식5
△박인규1 △손석대10 △이성현9
◆SPARC △김경초6 △김유경2
△변상남10 △이덕록7 △이환채6
△조영운7 △황보석1
◆ASP △김종배11 △김중수17
△김종완9 △유태완16

2 월 계 : 46,407,480원
평생회비 : 40,070,000원
입 회 비 : 290,000원
총 계 : 187,757,480원